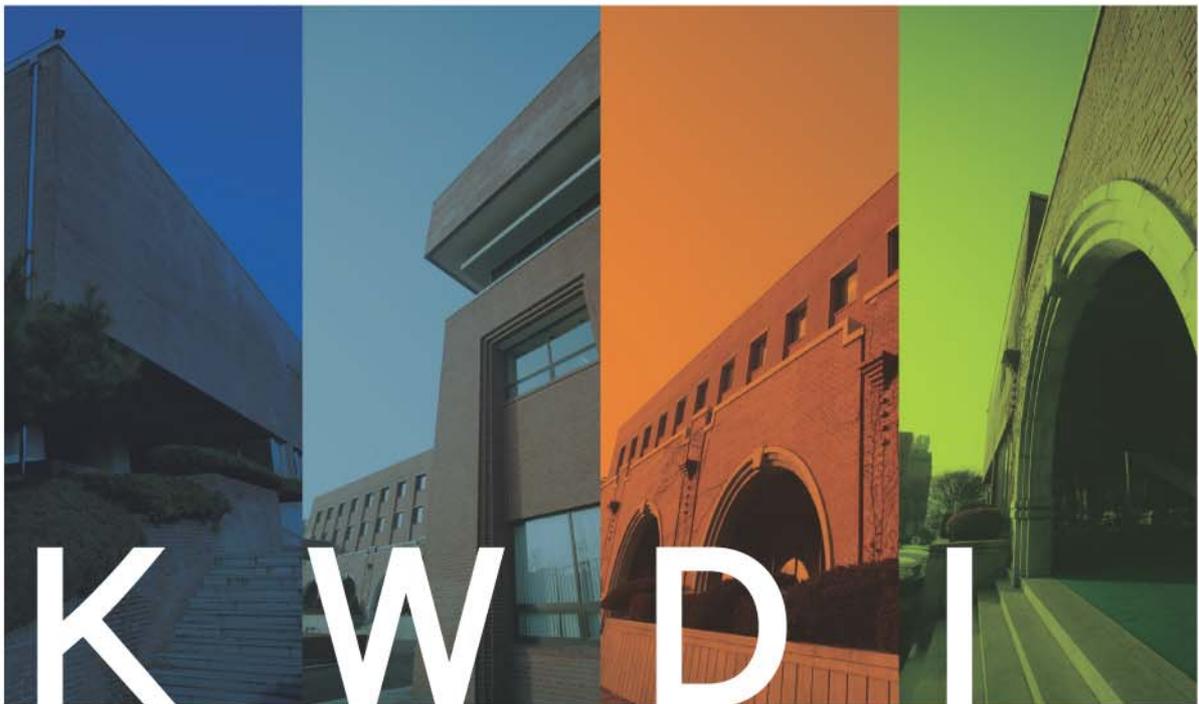


2011
연구보고서
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이수연 · 김인순 · 김지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연구책임자 : 이 수 연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인 순 (본원 전문연구원)

김 지 현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듯이 남성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의식과 성역할 구분은 여성의 삶을 어렵게 하고 남성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우월한 지위로 인해 가정, 직장, 사회에서 더 많은 특권과 기회를 누리는 만큼 더 많은 능력발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는 남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남성은 평생 이러한 부담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로 인한 심리적 역기능을 고려할 때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남성들의 과도한 성역할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형 검사도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남성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역할 갈등 자기 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남성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과 교육,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성평등 및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본 검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연구에서 본 검사가 많이 활용되어 자료가 축적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남성 연구수행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학문적으로 기여하는바가 클 것입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검사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의 수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와 자문을 제공해주신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과 통계분석부터 행정정보조까지 성실하게 도움을 준 김진아 위촉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속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남성의 성역할로 인한 심리적 역기능을 고려할 때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남성들의 과도한 성역할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도구’를 개발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규범의 특성과 이것이 한국 남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역기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남성 성역할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만큼 남성의 성역할 수행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하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균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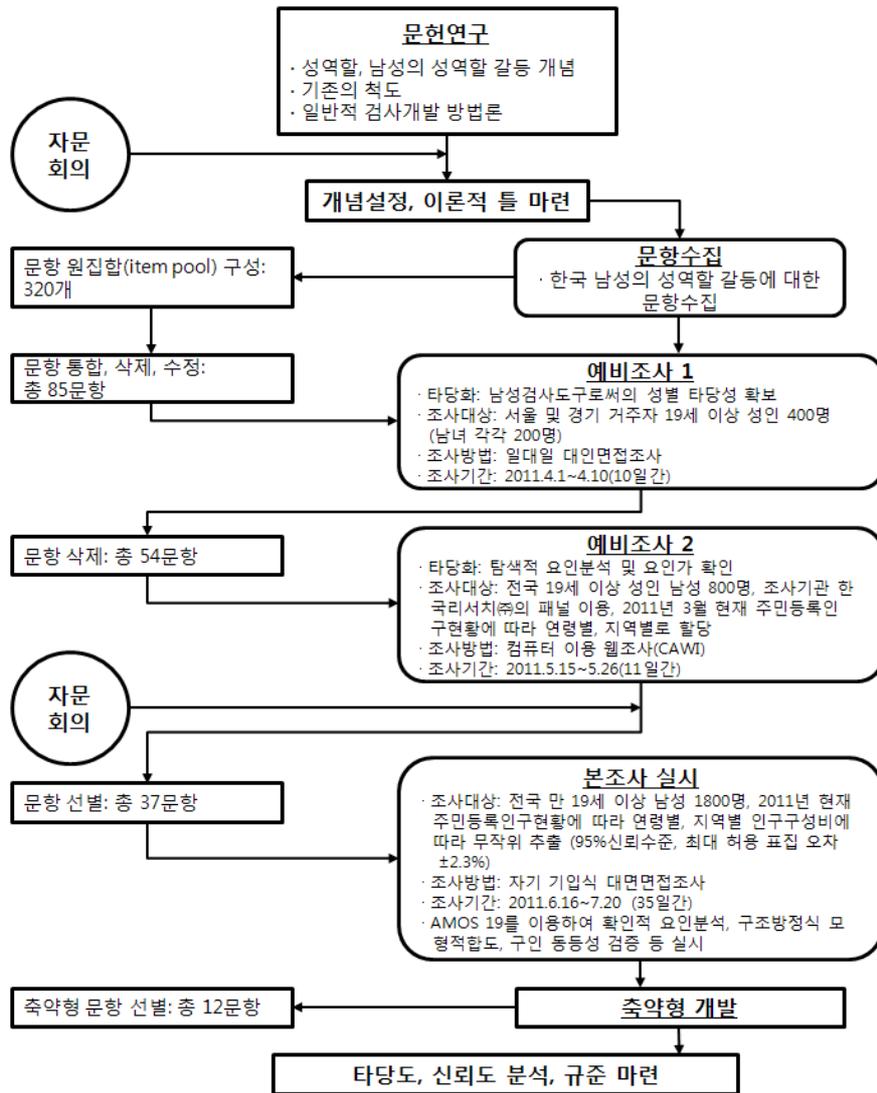
- 1) 남성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 개념 파악 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검사 문항 개발과 요인 추출 및 요인간의 구조 분석 3)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 조사 4) 남성 성역할 갈등과 심리 안녕과의 관계 규명 5) 검사의 활용방안 및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 도출로 구성된다.

3.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은 1) 검사의 요인과 세부항목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2) 기존 척도 조사, 연구진에 의한 문항개발, 일반인 대상 조사를 통한 문항개발,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한 원문항 구성 3) 남녀대상의 조사를 통해 남성 성역할 갈등 항목으로 유의미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1차 예비조사 4) 본조사에 사용할 문항선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등 문항선정을 위한 2차 예비조사 5) 다른 검사와의 변별, 수렴 타당도 검증, 구인 타당도, 구조방정식 모형적

합도 분석을 통한 검사도구 확정 및 다른 준거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위한 본조사 6) 본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사-재검사 7) 문항선정과 분석방법과 관련한 자문회의 실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연구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개발의 흐름도

4.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특성과 타당도

가. 요인

37문항의 검사는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변량은 60.2%이다. 제1요인(남성우월)의 설명변량은 28.2%, 제2요인(일·가정 양립 갈등)은 9.0%, 제3요인(성공·권력·경쟁)은 7.7%, 제4요인(감정표현 억제)은 6.4%, 제5요인(가장의 무감)은 4.8%, 제6요인(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은 3.9%였다.

오늘의 남성성역할 검사(GRCS)와 비교하면 본 검사에는 “가장의 무감”, “남성 우월” 요인이 추가되었다.

나. 신뢰도

최종 37문항에 대한 본조사의 신뢰도계수는 .899로 양호하게 나왔다.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808~.886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 1〉 본조사 37문항의 신뢰도

요인명	Cronbach's α	요인명	Cronbach's α
성공·권력·경쟁	.826	일과 가정 양립	.857
남성우월	.886	감정표현 억제	.808
가장의 무감	.848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867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899

다. 구인 타당도

1) 변별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

(1) 변별타당도

한국형 성역할검사(정진경, 1990)의 남성성 문항과의 상관계수를 본 결과 $r = -.003(p = .908)$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변별타당도를 만족시켜 주었다.

(2) 수렴타당도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1999)와의 상관계수를 본 결과 $r=.505(p=.000)$ 로 유의미하여 수렴타당도를 만족시켜 주었다. 한국형 다별 성별의식검사(안상수 외, 2007)와의 상관계수를 본 결과 적대적 성별의식과의 상관이 $.411(p<.01)$ 로 유의미하여 수렴타당도를 만족시켜 주었다.

2) 구조 방정식 모형 적합도

37문항의 모형적합도를 구한 결과 RMSEA는 .047로 .05보다 작아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신뢰구간도 .045 ~.048로 좁다고 할 수 있다. CFI가 .912, NNFI가 .905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검사의 모형 적합도

37문항 CFA	χ^2	df	GFI	NNFI(TLI)	CFI	RMSEA
	3018.723	614	.913	.905	.912	.047(.045-.048)

3) 구인 동등성 검증

(가) 형태 동일성

조사대상을 40세 전후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경쟁모형은 4요인과 5요인으로 설정하였다. 6요인 모형이 카이값, 자유도, RMSEA 값은 가장 작고 NNFI와 CFI 값은 가장 커서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나) 측정 동일성

χ^2 검증결과는 χ^2 의 차이값이 53.722, 자유도 차이 32, $p<.01$ 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서 χ^2 검증에 의한 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NNFI(TLI)와 RMSEA 검토 결과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2의 NNFI, RMSEA 지수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 절편 동일성

완전 절편 동일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부분 절편 동일성 검증을 위해 AMOS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하여 절편이 동일하지 않은 11개 문항의 동일

성 제약을 풀어준 결과 χ^2 검증은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NNFI와 RMSEA지수는 약간 향상하여 부분절편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라) 잠재 평균 분석

40대 전후 집단 간 구인동등성 검증단계를 거친 후 두 집단 사이 잠재 평균 분석을 한 결과, 40세 이상 집단에 비해 40세 미만 집단은 일·가정양립 갈등 요인을 제외하고는 $p < .001$ 수준에서 잠재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효과 크기는 ($d < .20$) 크지 않아 잠재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혼여부별, 지역규모별, 교육수준별 집단별 잠재평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혼/ 미혼, 대도시/중소도시,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집단간에 효과 크기는($d < .50$) 크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구인은 여러 집단을 통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구인 동등성이 검증되었다.

라. 준거 타당도

1) 전체 검사 및 요인별 준거변수와의 상관관계

검사의 구인과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준거 변수가 많을수록 준거타당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영역별(재정, 건강, 부모역할, 결혼 및 애정, 일·직장·학업) 스트레스를 준거 변수로 설정하였다.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는 모든 준거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 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296($p < .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상관계수는 .276($p < .01$)이었다.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관계 -.166를 보여 갈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중 재정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가 .226($p < .01$)로 가장 높았다. 건강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128($p < .0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는 .113($p < .01$)으로 낮았지만 유의미하였다.

각 요인과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와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은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는 대부분의 변수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다. 특히 자존감과 $-.237(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 갈등이 자존감을 낮추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으면 이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울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은 우울, 자존감과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특히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흥미롭다. 즉, 모든 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180$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이 갈등에는 한국 남성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스트레스 전체와 $.271(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221(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중에서는 재정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건강 스트레스와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는 각각 $.154(p < .01)$, $.136(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건강과 결혼 및 애정 관계에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볼 수 있다.

감정표현 억제 갈등은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우울과 $.217(p < .01)$, 자존감과 $-.208(p < .01)$, 스트레스 전체와 $.248(p < .01)$ 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스트레스 중에서는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 $.214$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재정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는 $.1$ 이상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가장의무감은 부모역할 스트레스, 우울,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는 부의 상관관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역할 갈등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자존감과는 $.165(p < .01)$, 부모역할 스트레스와는 $-.246(p < .01)$ 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가장의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도 높고 부모역할 등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우울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삶의 만족도와도 $.123(p < .01)$ 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그 기능에 있어 양가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정 스트레스와 $.146$ 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공에 관한 갈등이 높은 사람은 재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남성우월 갈등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정의 방향으로, 자존감과는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와 일·가정 양립 갈등과 같은 예측효과를 가지지만 상관계수는 낮았다.

2) 집단별 준거변수와의 상관관계

먼저 연령대별로 보면 우울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관계수가 높았다. 자존감은 20대, 30대, 40대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20대, 40대, 60대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40대에서 높았다. 재정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하였고 30대와 50대에서 상관계수가 높았다. 건강 스트레스와는 20대와 30대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하였고 20대와 30대가 높았다. 20대는 특히 .68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성역할 갈등이 높은 사람이 어린 나이에 부모역할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단지, 20대에 부모인 사람은 19명에 불과해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고 30대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는 30대에서 50대까지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집단은 우울, 재정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혼 집단에서도 다른 요인보다 이 요인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미혼 집단에서 더 높았다. 미혼 집단은 삶의 만족도와 .177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혼집단의 .096보다 훨씬 상관이 높았다. 기혼 집단에서는 미혼 집단에서는 없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결혼 생활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스트레스와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도 미혼 집단보다 높았다.

거주지 규모별로는 우울, 재정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대도시 거주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 일·직장·학업 스트레스는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약간 더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성역할 갈등과 삶의 만족도가 .211($p < .01$)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중소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력별로는 구조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고졸 이하 집단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 집단보다 우울, 재정, 부모역할, 건강,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또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도 높았다. 반면에 부모역할과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는 전문대졸 이상에서 높았다.

3) 외국 연구 결과와 비교

외국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 요인 중 감정표현 억제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고 이 외에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성공·권력·경쟁이 역시 중요하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가 가장 많은 준거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에서는 성공·권력·경쟁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연구 하나는 성역할 갈등과 자존감이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성공·권력·경쟁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국에서는 연령대별로 성역할 갈등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연구가 있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흥미로운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준거 변인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단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감정표현 억제와 일·가정 양립 갈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감정표현 억제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약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론적 시사점과 검사의 활용 방안

가. 이론적 시사점

첫째,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검사의 요인은 6개인데 이 중 ‘가장 의무감’과 ‘남성 우월’이라는 두 요인은 오닐의 남성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인으로 한국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특수성을 잘 보여 준다.

둘째, 가장 의무감 요인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특수성이다. 이 요인은 심리준거 변수와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우울감, 부모 역할 스트레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일·직장·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존감(.165)과 삶의 만족도(.082)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셋째, 연령대별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안녕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 성인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연령적 궤적을 짐작할 수 있다. 우울을 제외하고는 30대에서의 성역할 갈등이 가장 심각한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40대에는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의 정도가 낮아지면서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은 높아진다. 50대에는 재정 스트레스 및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이 높아지고 60대에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영역이 다양하며 갈등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개별적 속성과 사회 환경에 따라 성역할 갈등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심리상태와의 상관 패턴도 달라진다. 따라서 남성 성역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 검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 여성관련기관 홈페이지 탑재로 남성의 성역할 갈등 자기평가 기회 제공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면 자가검사가 가능하다. 남성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처럼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정신건강센터에서 남성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에 활용

남성 성역할 갈등은 모든 연령대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었다.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 본 검사를 우울, 자살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건강가족센터의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활용

엄격한 성역할 규범은 남성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건강가족센터에서 본 조사를 활용하여 남성의 감정표현의 중요성, 감성과 표현이 중시되는 시대적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된다.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폭력범 교화 프로그램에 활용

성역할 갈등은 성희롱, 강간 신화, 적대적 성차별주의, 성폭력, 데이트 중 여성

에 대한 폭력과 상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성이 되는 것이 반드시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적 영역에서의 태도와 행동을 교정시키는데 선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사범에게 성역할 갈등 검사를 시행하고 이들의 경향을 분석한 후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성평등 정책 및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에 활용

남성의 성역할 갈등 현황은 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특히 결혼이주자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 한국 남편들의 성역할 의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지는 남성 성역할 개념과 그들 남편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가. 남성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의 개념	6
나.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6
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 조사	6
라. 남성 성역할 갈등과 심리 안녕과의 관계 규명	6
마. 검사의 활용방안 및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도출	7
3. 연구 방법	7
가. 문헌연구	7
나. 문항 수집 및 구성	7
다. 예비조사 I	8
라. 예비조사 II	8
마. 본조사	9
바. 검사-재검사 신뢰도 조사	10
사. 자문회의	10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10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논의	13
1. 남성 성역할의 개념과 특성	15
가. 남성 성역할 개념의 변화	15
나. 남성 성역할 규범과 갈등	16
다. 한국의 남성 성역할 갈등과 남성성 이데올로기	18
2.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관련 연구	22

가. 오늘의 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22
나.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	28
Ⅲ. 검사 개발	31
1. 개요	33
2. 문항 개발	34
가. 문항수집	34
나. 문항선정 및 1차 설문문항	34
다. 원문항의 측정개념과 요인구조	35
3. 예비조사 1	36
가. 조사설계	36
나. 조사결과	38
4. 예비조사 2	43
가. 조사설계	43
나. 조사결과	45
5. 본조사	51
가. 조사설계	51
나. 조사결과	57
6. 축약형 개발	61
Ⅳ. 검사의 타당도	63
1. 구인 타당도	65
가. 변별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	65
나. 구조 방정식 모형 적합도	66
다. 구인 동등성 검증	69
2. 준거 타당도	80
가. 전체 검사 및 요인별 준거변수와의 상관관계	80

나. 집단별 상관관계	90
다. 외국 연구 결과와 비교	95
V. 검사의 활용	97
1. 검사의 표준화	99
가. 검사 지침과 점수 계산	99
나. 기준 및 해석	100
2. 이론적 시사점과 검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08
가. 이론적 시사점	108
나. 검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11
■ 참고문헌	117
■ 부 록	123
<부록 1> 설문지	125
<부록 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문항	143
■ Abstract	151

표 목 차

<표 III-1> 85개 원문항의 구성	36
<표 III-2> 1차 예비조사 대상자 분포	37
<표 III-3> 문항 평균값이 낮아 제거된 문항	39
<표 III-4> 8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후 제거된 24개 문항의 성분행렬	39
<표 III-5> 요인분석 후 제거된 문항	41
<표 III-6>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구인 비교	42
<표 III-7>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별 신뢰도 및 문항 수 (1차 예비조사)	42
<표 III-8> 2차 예비조사 대상자 분포	44
<표 III-9> 54문항 중 제거된 1개 문항의 구조행렬	45
<표 III-10> 38문항 중 제거된 1개 문항의 구조행렬	46
<표 III-11>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최종 37문항의 신뢰도	46
<표 III-12> 37문항의 구조행렬	47
<표 III-13> 최종 선정된 37개 문항의 문항-요인 상관관계	50
<표 III-14> 본조사 대상자 분포	55
<표 III-15> 본조사 37문항의 신뢰도	57
<표 III-16> 한국형 척도와 오닐의 척도(GRCS) 비교	58
<표 III-17> 요인 간 상관관계	61
<표 III-18>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12문항)	62
<표 IV-1> 검사의 모형 적합도	68
<표 IV-2> 축약형 검사의 모형 적합도	69
<표 IV-3>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71
<표 IV-4>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73
<표 IV-5>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χ^2 차이 검증	73
<표 IV-6>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74

<표 IV-7> 두 집단(기혼, 미혼)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74
<표 IV-8> 두 집단(기혼, 미혼) χ^2 차이 검증	75
<표 IV-9>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75
<표 IV-10> 두 집단(대도시, 중소도시)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76
<표 IV-11> 두 집단(대도시, 중소도시) χ^2 차이 검증	76
<표 IV-12>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76
<표 IV-13> 두 집단(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77
<표 IV-14> 두 집단(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χ^2 차이 검증	77
<표 IV-15>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잠재 평균 차이	78
<표 IV-16> 두 집단(기혼, 미혼) 잠재 평균 차이	79
<표 IV-17> 두 집단(중소도시, 대도시) 잠재 평균 차이	79
<표 IV-18> 두 집단(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잠재 평균 차이	80
<표 IV-19> 성역할 갈등 검사와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82
<표 IV-20> 연령대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90
<표 IV-21> 기/미혼 집단의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92
<표 IV-22> 거주 지역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93
<표 IV-23> 학력별 집단의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94
<표 V-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기술통계치	101
<표 V-2> 표 점수 전환: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102
<표 V-3> 요인별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104
<표 V-4> 축약형 요인별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105
<표 V-5> 축약형 문항 표 점수 전환: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106

그림 목 차

[그림 III-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의 흐름도	33
[그림 IV-1]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도구의 모형	70
[그림 IV-1] 성역할 갈등 전체와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83
[그림 IV-2]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84
[그림 IV-3] 감정표현 억제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85
[그림 IV-4]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86
[그림 IV-5] 가장의무감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87
[그림 IV-6] 성공·권력·경쟁 요인과 심리변수와의 상관관계	88
[그림 IV-7] 남성우월 요인과 심리변수와의 상관관계	89
[그림 V-1]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 프로파일: 6개 요인별	10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서 남성으로 사는 것은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가부장제도의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많은 특권을 가진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남성은 여성보다 많은 권력과 혜택을 누린다. 가정에서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남편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채용되거나 승진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은 주로 남성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반대급부를 동반하게 된다. 가정을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남성은 가정을 이끌어 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역할도 요구받는다. 직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만큼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남성은 우월한 지위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남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남성은 평생 이러한 부담을 지고 가게 된다.

이처럼 성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성역할이라고 부른다. 남성이기 때문에 수행하기를 기대 받는 역할은 남성 성역할이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의 중심은 앞에서 말한 대로 가족 부양자의 역할이다. 특히 일정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부양이 남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남성의 성역할은 좀 더 세밀하고 민감한 영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육체적 힘이 드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일의 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힘이 세고 체격이 커야 한다는 신체조건과 외모에 대한 기대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성격 측면에서 남성은 대범하고 관대해야 한다는 기대도 성역할의 일부이다. 이 때문에 데이트할 때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지 않는 남성은 경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산적이고 소심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남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남성 성역할은 반드시 부정적인 기능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에 잘 적응할 경우 남성 성역할이 규정하는 우월한 지위를 자신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성취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

4 ●●●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만 이는 동시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부정적 측면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남성 성역할은 경쟁과 투쟁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남성다운 남성이 된다는 것은 싸워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요구한다. 남성은 강하고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규범은 남성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는 성적 영역에 있어 남성의 성욕의 절대성의 강조와 함께 남성의 성폭력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개별 남성의 속성이 성역할에서 규정하는 속성과 맞지 않을 때 스스로 갈등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타인의 비난과 사회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 남성이 기대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비난과 처벌은 여성보다 훨씬 높다. 셋째, 성역할은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이는 모든 남성을 하나의 단일한 범주로 묶으며 남성 안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성역할 관련 이데올로기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남성에게 심한 부담감을 주게 된다.

성역할 규범은 내가 어떤 성(性)에 속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한 성(性)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인가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 정체성에 성적 정체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어서 한 성(性)으로서 성공은 곧 사회인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스트레스, 우울증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젠더 역할 갈등이 남성의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Good & Mints, 1990; Sharpe, 1993; Stillson et al, 1991; Cournoyer, 1993; Davis, 1987; Sharpe & Happner, 1991; Kaplan, 1992; Kaplan, O'Neil, & Owen, 1993).¹⁾

한국 남성들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전보다 성역할 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는 더 이상 평생취업을 보장하지 않으며 남성 혼자 힘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남성이 가족부양에만 매달리는 것도 더 이상 모든

1) 이 외에 젠더 역할 갈등과 태도, 가치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수연 외 (2009)를 참조하시오.

것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젊었을 때 가정을 위해 직장에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난 후 은퇴하고 나면 서툰 가정생활 때문에 가족에게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증가를 볼 때 사회의 성적 표현이나 행위에 대한 관용성이 늘어나는 변화와 함께 과도한 성역할 규범이 남성들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성역할이 초래하는 역기능을 고려할 때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며 남성들의 과도한 성역할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 성역할 규범이 무엇이고 이것이 남성에게 어떤 정신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여 한국 남성에 있어서의 성역할 부담과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이미 서구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서구와 문화 차이가 있어 그 척도를 단순히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우리 문화는 유교적 가부장주의, 집단정체성과 체면 중시, 이중적 성적 윤리 등 한국 고유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서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검사로는 측정하기 힘든, 고유한 남성 성역할의 측면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검사는 우리사회의 남성의 성역할 규범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한국 남성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남성 성역할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만큼 남성의 성역할 수행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하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균형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집단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남성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의 개념

남성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이 무엇인지 기존의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특히 O'Neil 외, 1986과 Eisler & Skidmore, 1987)의 구인(construct)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성역할 갈등과 관련되는 사회 기제인 성역할 규범과 이데올로기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유한 성역할 규범, 이데올로기, 성역할 갈등에 대해 설명한다.

나.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남성 성역할 개념과 성역할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한다. 기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남성 성역할 검사를 통해 보편적인 남성 성역할 갈등 요소를 찾는 동시에 한국 문화만의 고유한 남성 성역할 갈등 요인들을 찾고 이 요인들 사이의 구조를 파악한다. 축약형도 개발하여 검사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다.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 조사

개발된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를 통하여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조사한다. 연령대별, 학력별, 주거지역별 등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성역할 갈등의 차이에 주목한다. 또한 외국에서 수행된 성역할 갈등 조사 결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라. 남성 성역할 갈등과 심리 안녕과의 관계 규명

성역할 갈등 검사의 중요한 기능이 심리안녕 관련 변수를 예측하는데 있으므로 우울, 자존감, 스트레스 등 심리 준거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성역할 갈등의 각 요인과 연령별, 학력별, 거주지 규모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마. 검사의 활용방안 및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결과가 남성 성역할 관련 이론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그리고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또한 이 검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남성의 성역할 규범과 갈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 성역할 갈등 검사와 검사를 사용한 연구들을 분석한다. 또한 남성성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검토한다.

나. 문항 수집 및 구성

1) 수집

검사 문항의 원집합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검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남성으로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 자유 기술하도록 하여 문항을 수집하였다. 대상자 구성은 대학생 40명, 직장인 40명(공무원 20명 포함), 노인 10명이었다.

또한 기존에 많이 쓰이는 성역할 검사의 문항도 이용하였는데 오닐 외(O'Neil et al., 1986)의 37문항과 아이슬러와 스킴모어(Eisler & Skidmore, 1987)의 40문항이다.

이를 종합하여 320 여개의 문항 원집합이 마련되었다.

2) 타당화

수집한 문항들 중 연구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검사 구인인 남성 성역할 갈등 개념에 적합한지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85문항을 선정하였다.

8 ●●●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이 중 외국 검사 문항은 수차에 걸쳐 재번안을 실시하였다. 85문항이 문법에 맞고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국 언어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교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 예비조사 I

1) 목적

1차 예비조사는 문항 타당화를 위한 것으로 이 검사가 남성의 성역할 갈등 조사인 만큼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조사 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 200명과 성인 여자 200명으로 총 400명을 조사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비율에 맞게 연령, 지역, 직업에 따라 할당하였다.

3) 조사 방법

일대일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4) 조사 일정

2011년 4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수행하였다.

라. 예비조사 II

1) 목적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여 본조사에 사용할 검사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구성 타당도 검증의 일환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2)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주)의 패널을 이용하여 패널 중 2011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선정하였다.

3) 조사 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를 실시하였다.

4) 조사 일정

2011년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실시하였다.

마. 본조사

1) 목적

신뢰도를 검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사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여 검사의 최종문항을 선정한다. 그리고 검사와 다른 영역할 관련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변별, 수렴 타당도를 조사하고 심리 관련 준거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검사의 남성 심리안녕도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한다. 또한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규준을 작성하고 검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축약형을 개발한다.

2)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성 1,800명이다. 표본추출은 2011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2.3\%$ 이다.

3) 조사 방법

자기 기입식 대면면접조사로 수행하였다.

4) 조사 일정

2011년 6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35일 동안 실시하였다.

5) 분석 방법

SPSS 통계패키지 19를 이용하여 일반 기술통계, 상관관계, 평균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 AMOS 19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구인 동등성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바. 검사-재검사 신뢰도 조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기 위해 표본의 5%인 90명에 대해 전화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본조사가 끝난 7월 20일부터 3주 후에 실시하였다.

사. 자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남성학 연구자, 남성 관련 검사 개발자, 통계전문가, 그리고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남성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문화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성역할 규범을 밝힘으로써 한국 남성의 상황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남성들 성역할이 자신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스스로 성역

할 갈등 해소를 위한 유연하고 보완적인 남성 성역할 모델을 지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검사는 개발 후 많이 이용되어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를 입증하고 무엇보다 이 검사를 사용해서 설명,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단계와 상황에 있는 여러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적용하여 심리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40,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우울증, 불안과 스트레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 갈등 검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쪽 성의 성역할이란 다른 성의 역할과 대치되거나 보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성역할 갈등을 통해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의미를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두 성의 성역할 갈등을 다 아는 것이 남녀 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논의

1. 남성 성역할의 개념과 특성 15
2.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관련 연구 22

1. 남성 성역할의 개념과 특성

가. 남성 성역할 개념의 변화

성역할은 타고난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을 말한다. 여기서 역할이라 함은 가사나 경제활동, 그리고 가족부양처럼 부여받은 임무나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 외모적 속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즉, 여성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고 어떠한 성격적, 외모적 속성을 가지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관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성역할이 자신의 성향이나 속성과 잘 부응할 때 성역할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성의 규정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괜찮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선천적 성향과 속성이 성역할 규범과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이는 심리적 혼동감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성의 성역할은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즉, 남성 성역할 규범이 규정하는 남성성은 흔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속성들-논리성, 독립성, 자신감, 강함, 튼튼함, 현실성 등(이수연 외, 2009, 12)-을 포함하고 있고 또 경제활동이나 병역 의무 같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사회과학에서 남성성을 보는 지배적 시각이었던 ‘젠더 역할 정체성(gender role identity)’ 모델은 바로 남성성역할의 긍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남성이 “정상적인 남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성 젠더 역할 정체성을 개발해야 하고 (Pleck, 1981, 210),” 이처럼 성역할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나 필요하다(ibid., 210)”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학문적 조류에서 개발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벰(Bem, 1974)의 ‘성역할 목록(Sex Role Inventory)’과 스펜스와 헬리히(Spence & Helmreich,

1978)의 ‘개인속성 질문지(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는 남성성 척도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항목만을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이 검사를 활용한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은 남성성 척도는 긍정적인 속성들과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비행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데이트 상대에 대한 심리적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Horwitz & White, 1987, Thompson 1990; Pleck, 1981, 17에서 재인용).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 성역할 규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젠더 역할 정체성 모델이 경험적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데 대한(Levant & Pollack, 2) 문제의식을 가지고 ‘젠더 역할 부담 패러다임(gender role strain paradigm)’이 등장하였고 이후에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social constructionism paradigm)’도 등장하였다(이수연 외, 2009, 18-21). 남성의 성역할을 보는 혁명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렉의 젠더 역할 부담 패러다임은 남성 젠더 역할의 문제점으로서 ‘젠더 역할 불일치(gender role discrepancy or incongruity)’, ‘젠더 역할 외상(trauma)’ 그리고 ‘젠더 역할 역기능(gender role dysfunction)’을 제안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젠더 역할 정체성 모델의 전제와는 달리 젠더 역할 규범은 보통의 남성들이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적응하려는 사회화 과정은 남성들에게 외상(trauma)을 남길 수 있고 결국 남성의 심리적 안녕에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²⁾

나. 남성 성역할 규범과 갈등

플렉(Pleck, 1981)의 젠더 역할 부담 패러다임의 이론적 시각에 근거하여 남성 성역할 갈등을 연구한 오닐은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젠더 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 결과나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고(O’Neil et als, 1986, 336) “엄격하고 성차별적, 혹은 제한적 젠더 역할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구속, 평가절하, 혹은 침해를 초래(O’Neil, 2008)”한다

2) 젠더 역할 부담 패러다임과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수연 외, 2009, 18-21을 참조하십시오.

고 주장한다. 플렉은 성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역할은 규범 안의 모순 및 비현실성과 규범의 시대적 상대성 등으로 들고 있다. 즉, 어떤 규범은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실제로 성역할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또한 이를 위반할시 겪게 되는 처벌이 가혹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것도 갈등을 높이는 이유로 제시한다. 거기에 “젠더 역할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더욱 심각한 사회현상이 될 수 있다(Pleck, 1995, 12)고 주장한다.

이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성역할 갈등을 더 심하게 겪게 되는 것은 남성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의 엄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물론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원적이고 고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고대와 근대에서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서는 서로 다른 남성성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범주를 관통하는 몇 개의 공통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Pleck, 1995). Levant는 이를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Brannon은 미국에서의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를 “계집애 같은 사내는 안 돼(no sissy stuff),” “큰 바퀴(the big wheel),” “견고한 참나무(the sturdy oak),” 그리고 “혼내줘(give'em hell)”의 4 구성요소로 정리한다. 즉, 남성은 여성 같아서는 안 되고, 훌륭한 성취를 이루어서 존경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절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고, 모험과 위험을 추구하고 필요하다면 폭력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Brannon & Juni, 1984). 그 이후에 Levant와 동료들은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7가지 차원을 제시하는데 “여성적인 것은 모두 피할 것; 감정적 생활을 제한; 강인함과 공격성을 강조; 자족적(self-reliant)일 것; 무엇보다 지위(status)를 획득할 것; 섹슈얼리티에 대한 절대적(nonrelational)이고 객관적 태도;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증오”이다. 학문적인 영역 밖에서는 좀 더 상식적인 언어로 남성성의 신화를 큼, 강함, 용감함, 성취의 장려, 성 전문가(expert), 감정표현 억제, 약함과 눈물에 대한 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Burns & Oliver).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남성성은 무엇보다 강함과 성취를 강조한다. 또한

협력이나 상생이 아닌 독자적인 생존과 공격성과 폭력성을 권유한다. 이러한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특성은 남성 성역할을 갈등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투쟁과 경쟁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협력이나 의존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여성과 달라야한다는 명제는 남성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데 여성적이라는 것 또한 일원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마치 움직이는 과녁을 겨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 등은 남성 성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젠더 역할 전환을 경험하거나 어려운 발달단계 과업(developmental task)에 직면할 때; 젠더 역할 기준이나 남성성 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하거나 위반할 때; 젠더 역할 기준이나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맞추지 못하거나 맞추려고 애쓸 때; 실제 자기인식(self-concepts)과 젠더 역할 스테레오타이프로, 혹은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이상적 자기인식 사이에 괴리를 경험할 때; 남성성 이데올로기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신을 평가절하, 구속, 혹은 모독할 때; 남성성 이데올로기에서 이탈 혹은 이에 공조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평가절하, 구속, 모독을 경험할 때; 남성성 이데올로기에서 이탈 혹은 이에 공조하기 때문에 타인을 평가절하, 구속, 침해할 때(O'Neil, 1990; O'Neil & Egan, 1993)이다. 이처럼 남성 성역할 규범과 이데올로기는 성역할 갈등을 초래한다.

다. 한국의 남성 성역할 갈등과 남성성 이데올로기

한국의 남성 성역할 갈등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남성의 높은 과로사 비율에서도 보듯이 한국에서 남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남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이 다분히 성차별 요소가 많은 사회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높고 이는 다시 남성의 우월성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한 남성학자는 한국 남성들의 성역할에 부응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외친다.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싱싱한 활어처럼 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세상을 설득시키고 자신의 체력을 속여 가며 강한 남자로 남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남자답게 사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만큼 덧없는 것이 없다. 막상 따져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답게 사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지 않은가? ... 세상이 정해놓은 ‘남자답게 사는 법’을 숙지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아마도 남자들 대부분은 “행복? 철없는 소리 하기는 먹고 살 만한가 보네.”라며 행복과 남자의 인생은 애초부터 거리가 멀다는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게 ‘의미 있는 삶’ 혹은 ‘남자다운 삶’이라고 믿는 남자들이 많은 것뿐이다(우종민, 2009, 7).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내면과 잘 조화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 앞의 학자는 이를 “집단 자폐증에 빠져 있다”로 표현한다.

자폐증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상사에게 아무 잘하고 이해관계도 잘 따지지만, 아내와 자녀, 그리고 부하의 마음을 읽는 데는 쟈병이다. 아내가 열심히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면 “뭘 그런 걸 갖고 울어”, “왜? 그 까짓 것이 뭐라고 화를 내?” 이렇게 말문을 막아버린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감정 처리에 익숙지 않으니까 그냥 귀를 막아버린다.

직장에서도 융통성이 없고 답답할 정도로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냥 자기 식으로 밀고 나가면 그만이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허둥댄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갑자기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지고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다는 자괴감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ibid., 8)

이처럼 한국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은 한국의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과도함에 연유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남녀 지위의 차이가 큰 만큼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차별될 수 있는 남성성의 이상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남성성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박노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성 이데올로기의 중심은 남성성에 있어 학력과 경제력의 필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한국 사회에서 “남자”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정답은 꽤 자명하다. 첫째, “학력 자본”의 소유자, 즉 학교 “간판”의 소유자이며, 둘째 경제 능력의 소유자, 즉 돈벌이의 주인공이다(박노자, 2010, 5).

경제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어서 “돈을 버는 남성”이라면 그가 집안에서 폭군 노릇을 해도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참아주고 “아버지”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경제 능력의 결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ibid., 6)는 것이다. 학력 또한 다른 모든 결점을 덮을 수 있는 한국만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남자의 “근육”과 “주먹질”에 매력을 느끼는 다른 지역(예를 들어 동유럽)과의 뚜렷한 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열심히 학습하고 돈벌이하는 남성’이 ‘근육질의 남성’을 거의 완전하게 눌러버린 사회가 됐다(ibid.)”는 것이다.

확실히 조선시대라는 학문적 성취에 따른 위계질서 사회의 전통이 있고 축약적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질적인 열망이 높아진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경제력의 강조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측면은 한국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일 것이다. 남성성의 이데올로기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성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박노자 자신이 주장했듯이 현재의 한국의 이상적 남성상은 전통적 요소가 근대화 과정의 서양과 일본의 자본주의적 영향을 거쳐 형성된(박노자, 2010, 9) 것이어서 미국의 그것보다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요소를 가질 것이다.

전통시대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남성성을 존중하였다. 예를 들어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의 무사들은 이성에 대한 최소관심, 의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 전투에 최선을 하는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고 조선 후기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에서는 “폭력 능력과 담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유형과 상당히 흡사하면서도 유교 도덕으로 통제되고 조절된 군사주의적 남성성(ibid., 58)”이 나타난다. 이처럼 남성다운 폭력행사를 숭상하고 근육과 담력을 중시하면서 유교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잃지 않는 것이 평민에 있어서의 이상적 남성성이라면(ibid., 69-70) 명석한 두뇌, 고상한 몸가짐, 의무감과 정의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균형과 절제(ibid., 69)를

가지고 금욕, 자제, 비분강개, 소리에 매이지 않는 대담함을 존중하는 것은 선비에 해당되는 이상적 남성성이었다(ibid., 75). 그런데 혹자는 유교에서 이러한 남성의 이상상에는 “온순함과 선량함, 공송함과 검소함 그리고 겸양의 태도(이숙인, 2002, 16)”가 있지만 동시에 “지배자·재위자로서의 의미(ibid., 18)” 즉, “관계적 구조”에서 “폭군(ibid., 20)”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의 평민과 선비의 이상적 남성성에는 모두 서로 상호호순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박노자로 돌아오면 근대에 들어와서 이상적 남성성은 1900년대 계몽주의자의 이상이 결합된 용기, 자신감, 명예심, 독립의 기상(ibid., 32)의 유교적 윤리 위에 구미에서 수입된 “진정한 사나이”의 이상이 반영된 신체적 단련(ibid., 41), 군인의 이상에 따라 훈육된 남성(ibid., 178)등이 추가되게 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용맹, 자기희생적 자세, 신체적, 정신적 활력 등이 한국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다른 요소들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된 다양한 요소들은 한국 남성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앞에서 보여준 서구에서의 남성 이데올로기의 요소들-강함, 성취, 용감함, 독자성-같은 가치 위에 ‘자기희생, 명예, 의리’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은 남성들의 야망을 선도하는 선기능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과 감정을 교환하지 못한 채 자신의 틀 속에 갇히는 역기능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은 더욱 성역할 갈등을 강하게 느끼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관련 연구

가. 오닐의 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1) 구인(construct)과 요인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남성들의 심리적 건강을 해친다는 이론적, 경험적 통찰을 기반으로 80년대에는 중요한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다. 먼저 1986년에는 그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오닐 등의 성역할 갈등 척도(O'Neil et al., 1986)가 개발되었다.

오닐은 검사의 구인(construct)을 구하기 위해 남성 성역할 갈등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는데 그동안의 다양한 남성성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성에 대한 공포’라는 주제를 발견한다. 이는 여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적 여성성 가치, 태도, 행동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을 말한다. 이는 무엇보다 남성성을 여성(성)과의 차이로 증명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공포와 여성성에 가까워지는데서 느끼는 위협은 심리학적 연구(Boehm, 1930; Hays, 1964; Horney, 1967; Jung, 1953; Menninger, 1970), 신화연구(Lederer, 1968; Johnson, 1977), 그리고 남성 사례연구(Levinson et al., 1978) 등에서 연구되었다(ibid., 337에서 재인용). 심리학 영역에서는 용의 남성 무의식 속의 여성성의 전형으로서 ‘아니마(anima)’ 개념이 대표적이다. Levinson의 사례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자신 안의 여성적 측면을 억압하고 이 부분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함을 밝히고 있다. 오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프로이트의 유명한 거세(castration) 위협도 같은 맥락에서 남성에게 여성성과의 구별을 강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닐은 여성성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젠더역할이 형성되는 초기 영아기에 부모, 친구,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학습된다고 생각한다(ibid., 337).

오닐은 앞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남성성, 남성의 사회화, 그리고 남성성 가치관에 대해 저술한 전문적, 대중적 저서들로부터 6개의 남성 성역할 갈등의 요인을 추정하는데 이는 1. 감정 억제, 2. 호모포비아, 3. 사회화된 통

제, 권력, 경쟁, 4. 성적, 감정적 행동의 억제 5. 성취와 성공에 집착 6. 건강 돌봄 문제이다. 그러나 검사 개발 결과, 앞의 요인들이 재구성되어 성공·권력·경쟁(Success, Power, Control), 감정 억제(Restrictive Emotionality),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일과 가정 관계에서의 갈등(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s)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항 수는 모두 37문항으로 성공·권력·경쟁(SPC) 13 문항, 감정표현 억제(RE) 10문항, 남성들 사이의 감정적 행동 억제(RABBM) 8문항, 일과 가정 양립(CBWFR) 6문항이다.

4요인 중 성역할 갈등 검사(GRCS)의 조작적 정의-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 성역할을 제한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감정 억제(Restrictive Emotionality, RE),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Restrictive Affectionality and Behavior Between Men, RABBM), 일·가정 관계에서의 갈등(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CBWFR)의 세 요인이다. 즉, 남성의 감정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일·가정 관계에서의 갈등은 특정한 남성 성역할의 억제를 의미한다. 나머지 요인인 성공·권력·경쟁(Success, Power, Competition, SPC)은 남성성 이데올로기 및 남성성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경쟁과 권력, 성공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성역할 갈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GRCS의 문항은 인지 관련 11문항, 감정 관련 15문항, 행동영역 20 문항으로 인지, 감정, 행동 차원 문항이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다.

2) 심리적 역기능과의 관계

성역할 갈등 척도는 성역할이 남성들에게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척도와 남성의 심리적 역기능과의 상관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이 척도와 심리적 준거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가) 남성의 내면과 성역할 갈등

많은 연구들은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역기능

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던 남성의 우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에서 논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이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논하였다. 오늘에 의하면 27개의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의 모든 요인이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 표현 억제 요인이 가장 일관적으로 우울을 예측하였다고 한다(Blazina & Watkins, 1996; Brewer, 1998; Burke, 2000; Bursley, 1996; Coonerty-Femiano, Katzman, Femiano, Gemar, & Toner, 2001; Cournoyer & Mahalik, 1995; D. S. Shepard, 2002; Fragoso & Kashubeck, 2000; Good & Mintz, 1990;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els, 1996; Good & Wood, 1995; Hayahsi, 1999; J. Kim, Choi, Ha, & O'Neil, 2006; Jo, 2000; Jones, 1998; Kang, 2001; Kelly, 2000; Magovcevic & Addis, 2005; Mahalik & Cournoyer, 2000; Mertens, 2001; Newman, 1997; Peterson, 1999; Sharpe & Heppner, 1991; Sharpe Heppner, & Dixon, 1995; Simonsen et al., 2000; Tate, 1998; Theodore, 1997; O'Neil, 2008, 383에서 재인용).

성역할 갈등과 자존감, 무감정(alexithymia), 수치감, 알코올/약물복용, 성격과의 관계도 조사되었다. 먼저 낮은 자존감은 성역할 갈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가정되어왔는데, 11개 연구(Berko, 1994; Bursley, 1996; Cournoyer, 1994; F. Davis, 1998; Hayashi, 1999; J. Kim et al., 2006; Jo, 2000; Laurent, 1998; Mahalik et al., 2001; Schwartz et al., 1998; Sharpe & Heppner, 1991, *ibid.*, 3385에서 재인용)에서 성역할 갈등과 자존감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성역할 갈등의 모든 요인들이 낮은 자존감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무감정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Levant, 1995) 다수의 연구에서 무감정과 수치감이 성역할 갈등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erger, Levant, McMillan, Kelleher & Sellers, 2005; Shepard, 2002; Eicken, 2003; Fischer & Good, 1997; Hayashi, 1999). 여기에서도 감정표현 억제 요인이 가장 일관적인 예측변수였다. 음주와 약물복용은 성공·권력·경쟁(SPC), 감정 억제(RE),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RABBM)요인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Blazina & Watkins, 1996; Fahey, 2003; Kang, 2001; Korcusa & Thombs, 2003; McMahon et al., 2000; Monk & Ricciardelli, 2003; Peterson, 1999). 약물복용과 성역할 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전제는 약물이 성역할 기대를 누그러뜨려 구속적 젠더 역할로부터의 갈등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성역할 갈등은 성격과도 관련되는데 성격 유형(Cortese, 2003; Schwartz, Buboltz, Seeman, & Fley, 2004), 성격 모델(Fischer, 2007; Kratzner, 2003; Serna, 2004; Sipes, 2005; Tokar et al, 2000), 자아 정체성(Arnold & Chartier, 1984; Rounds, 1994), 권위주의(Chamberlin, 1993) 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기타 종교성 등 다양한 남성의 내적 속성과도 상관을 보였다. 내적/종교적으로 집중된 경향의 남성은 유의미하게 낮은 성역할 갈등을 보여 성역할 갈등과 영성(spirituality)과의 관계도 나타냈다(Jurkovic & Walker, 2006; Mahalik & Lagan, 2001; Reiman, 1999). 성역할 갈등 중 감정 억제(RE),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RABBM), 성공·권력·경쟁(SPC) 요인은 대처방안(coping method)의 문제점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Bergen, 1997; BIRTHISTLE, 1999; Jones, 1998; Stanzione, 2005; Strom, 2004; Wester, Kuo, et al., 2006). 또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근육질 추구하고 유의미하게 연관된다(McConville, 2004; McCreary, Saucier, & Courtenay, 2005). 감정 억제 요인은 남성의 만성적 자기파괴경향(Naranjo, 2001)이나 절망감(BIRTHISTLE, 1999; Brewer, 1998)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 감정 억제 요인은 이 외에도 문제 회피 태도와 문제 해결에 대한 낮은 자신감과 연관된다(Chamberlin, 1993; Good et al, 2004).

(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은 인간관계의 역기능 패턴(구속성, 집착문제, 결혼생활의 불만족)과도 유의미하게 관련된다. 나아가 남녀관계(couples)의 역동성, 가족 상호작용 패턴, 친밀감과 자기노출의 문제와 모두 유의미하게 연관된다. 일관적인 패턴은 성역할 갈등이 남성과 타자들 사이의 부정적 대인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역할 갈등은 또한 남성의 여성, 동성애자, 소수

인종에 대한 부정적이고 제한적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성역할 갈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사고, 행동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성역할 갈등은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및 섹스 강요(Kaplan, 1992; Kaplan, O'Neil, & Owen, 1993; Serna, 2004), 학대적 행동과 강요(Schwartz et al., 1998; Senn et al., 2000), 데이트 폭력(Harnishfeger, 1998), 강간 신화 수용(Kassing et al., 2005; Rando et al., 1998; Serna, 2004; T. L. Davis, 1997), 성희롱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관용(Covell, 1998; Glomb & Espelage, 2005; Jacobs, 1996; Kearney, King, & Rochlen, 2004), 스스로 보고한 폭력과 공격(Amato, 2006; Chase, 2000; Cohn & Zeichner, 2006; Johnston, 2005)과 유의미하게 상관된다고 보고되었다(O'Neil, 2008, 393에서 재인용). M.S. Hill과 Fisher(2001)는 성역할 갈등의 요인들이 남성의 일반적, 성적 자격(entitlements)이라는 매개요인에 의해 강간 관련 기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 성역할 갈등 요인 중 감정 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는 남자 대학생 중 성적으로 공격적인 사람과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Rando et al., 1998),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Wall & Walker, 2002)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성역할 갈등은 역기능적이고 위험한 대인관계와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O'Neil, 2008, 388-393).

(다) 치료적 맥락에서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이 어떻게 치료와 관련되는지는 현재 떠오르고 있는 연구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성역할 갈등이 남성 환자의 치료에 대한 심리적 압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치료에서 성역할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연구는 없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태도와 성역할 갈등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치료사들에게 중요한 발견이다. 즉, 치료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남성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남성 이데올로기에 위배되고 따라서 남성 정체성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사들은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남성들이 치료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ibid., 399).

3) GRCS를 이용한 국제 연구 결과

GRCS는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라틴계, 아시안계 등 다양한 인종에게 적용되었고, 또한 다양한 계급, 연령, 생애단계, 성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인 비교연구결과는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변인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우울 등 심리적 역기능과 성역할 갈등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낮은 자존감과 성역할 갈등도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 관계는 백인대학생, 일본, 한국, 흑인,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 집단에서 모두 확인되었다(ibid., 384).

백인대상 연구에서는 감정 억제가 성역할 갈등의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인데 반해 멕시코 계 미국인에서는 성공·권력·경쟁과 감정 억제가, 아시아계 미국인에서는 성공·권력·경쟁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들 중 문화 순응도가 높은 사람은 감정 억제 갈등은 적고 성공·권력·경쟁 갈등은 높았다. 유교에 대한 태도에서 민족 중심주의가 성역할 갈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존중감은 연관성이 없었다.

연령 차이와 성역할 갈등 유형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Mendelson, 1988; Stillson et al., 1991) 6개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성인보다 성공·권력·경쟁과 남성 사이의 애정행동 억제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ewer, 1998; Burke, 2000; Gough, 1999; Heath, 1995; Leka, 1998; Pytluk & Casas, 1998).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생과 성인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성공·권력·경쟁 갈등은 높고 성인은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았다(Cournoyer & Mahalik, 1995; Theodore & Lloyd, 2000). 가장 중요한 발견은 감정 억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이 성향이 시간이나 경험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O'Neil, 2008, 381). 은퇴한 남성 연구에서 감정 억제, 남성 사이의 애정행동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할수록 은퇴만족도가 증

가하였다(Graham, & Romans, 2003; W. G. Hill & Donatelle, 2005; Lontz, 2000). 그러나 성공·권력·경쟁 갈등이 높을수록 은퇴 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이 나타났다. 반면에 은퇴자의 성공·권력·경쟁 갈등, 남성 사이의 애정행동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은 반여성주의를 예측해주고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한다(Lontz, 2000).

성역할 갈등과 관련된 한국에서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김지현과 동료들은 오닐의 성역할 갈등 척도를 번안한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2003)”를 개발하였으며, 이 검사를 활용하여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를 본 결과,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해주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이 검사를 활용한 또 다른 연구는 남자 대학생에 있어 기본 욕구 충족이 성역할 갈등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즉,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기본 욕구 충족이 어려워 우울이 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

1) 구인과 요인

오닐의 성역할 갈등 검사 외에도 남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Eisler와 Skidmore의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는 젠더 역할 갈등이 스트레스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젠더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즉, 오닐의 성역할 갈등 척도와 마찬가지로 이 척도도 남성성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는 이전의 벰(Bem, 1974)이나 스펜스(Spence & Helmreich, 1978)의 남성성 척도와 구분된다(Eisler & Skidmore, 1987, 125). 이 척도는 전통적 남성 성역할이 남성에게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하도록 한다. 즉, 전통적 남성 성역할이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혹은 남성적이지 못한 (혹은 여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남성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의 성역할 갈등 검사와 비교해 볼 때 이 척도의 특징은 갈등의 남성 관련성, 이것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고유한 갈등인가를 측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처음 수집된 105개의 문항을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 그 중 남성 관련성이 높은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또 남성에게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평가된 문항 중에서도 중간 점수(median) 이상의 평가를 받은 문항만 선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문항은 40문항이다. 이 척도의 요인은 육체적 열등감, 감정표현 억제, 여성에 복종, 지적 열등감, 그리고 수행 실패의 5가지이다. 대부분의 요인이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성역할 갈등척도와는 달리 이 척도는 육체적 열등감, 여성에 복종, 지적 열등감, 수행실패의 대부분의 문항이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되고 감정표현 억제와 관련된 문항만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2) 심리적 역기능과의 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 검사의 전제는 이 척도가 분노나 불안과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Siegel의 다면 분노 측정도구(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1986)와 Spielberger 등의 불안 상태-속성 측정도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1983)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는 분노와는 $r = .54(p < .01)$, 불안과는 $r = .23(p < .05)$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Eisler & Skidmore, 1987). 이 외에도 이 척도를 사용한 15개의 연구 중 12개의 연구에서 불안이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Blazina & Watkins, 1996; Burke, 2000; Bursely, 1996; Cournoyer & Mahalik, 1995; F. Davis, 1988; Hayashi, 1999; Jo, 2000; Jones, 1998; Kang, 2001; Mertens, 2000, 2001; Sharpe & Hppner, 1991; Theodore, & Lloyd, 2000). 스트레스도 다수의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의 모든 패턴과 관련되었다(Fragoso & Kashubeck, 2000; Good et al., 1996, 2004; Hetzel, 1998;

Hetzel, Davenport, & Brooks, 198; J. A. Hayes & Mahalik, 2000; Kratzner, 2003; Leka, 1998; Van Delft, 1998).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욕구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져 근육질이면서 날씬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관계가 있었는데 젠더 역할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근육질의 마른 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ssap, 2008). 즉, 성역할 규범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날씬하고 근육질의 남성 몸에 대한 사회의 압력을 느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는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과 관계가 있다(Basow, 1980). 이 결과들은 남성의 성역할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Eisler의 전제를 지지한다. 구속적 젠더 역할은 남성과 타자의 평가절하, 구속, 위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는 종교적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urkovic과 Walker(2006)는 종교적 집단이 비종교적 집단보다 성역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적 행복 수준이 낮았다.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형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윤진과 동료(1989)들은 성역할 스트레스와 성역할 지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미분화 집단의 스트레스가 가장 작아, 양성성 집단의 스트레스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 서구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는 아니지만 한국 남성의 성역할을 측정하는 한국형 검사를 개발한 박수애·조은경(2002)은 중장년 집단에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낄수록,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우울감이 큰 것을 밝혀냈다. 즉, 지나친 성역할 수용이 개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다(이수연 외, 2009, 35).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오닐의 성역할 갈등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오닐의 성역할 갈등 척도에 비해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는 심리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도 남성의 내면적 기능, 대인적 기능 등 많은 측면과 관련되어 남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활용도에 있어 성역할 갈등 척도가 더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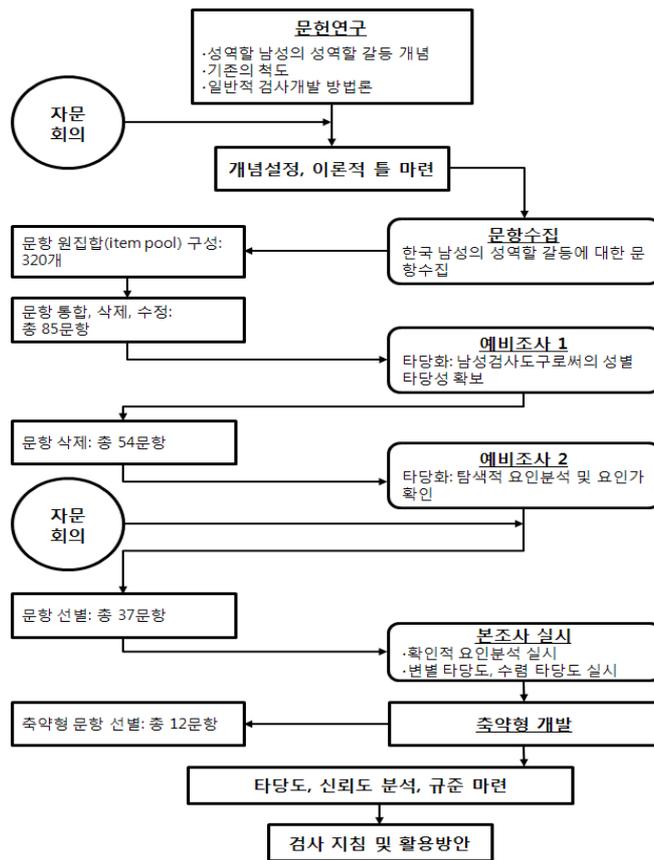
Ⅲ

검사 개발

1. 개요	33
2. 문항 개발	34
3. 예비조사 1	36
4. 예비조사 2	43
5. 본조사	51
6. 축약형 개발	61

1. 개요

검사 개발은 1) 문항 개발을 위한 문항수집과 수집된 문항에 대해 연구진과 전문가에 의한 선별과정, 2) 원문항 축소과정으로서 문항 선별 타당도 측정을 위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예비조사, 3) 다시 문항 압축을 위해 1차 예비조사 결과에서 선정된 문항으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신뢰도, 타당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2차 예비조사, 4) 2차 예비조사에서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조사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인 동등성 검증,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본조사, 그리고 5) 축약형 검사 개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Ⅲ-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의 흐름도

2. 문항 개발

가. 문항수집

한국남성의 고유한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남성의 성역할 특성이 문항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에 의한 남성 성역할 관련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기반의 문항개발과 일반인에 의한 생활 경험을 통한 문항 개발의 두 경로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에 의한 문항 개발은 1986년에 개발되어 232개가 넘는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오닐(O'Neil)의 성역할 갈등 척도 37문항, 아이슬러와 스키드모어(Eisler & Skidmore)의 남성 젠더 역할 스트레스 척도 40문항, 그리고 김지현, 윤진, 박수애 등이 외국에서 개발한 척도들을 번안하거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의 문항, 그리고 최근 한국남성 연구물에 나타난 한국 남성성 및 남성 성역할 갈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직접 문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성인을 주축으로 한 문항 개발은 이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공감하거나 체감하는 남성 성역할 갈등을 적도록 하여 문항 풀을 만들었다. 대학생 40명, 직장인 20명, 공무원 20명, 노인 10명의 총 90명을 대상으로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을 짧은 문장으로 자유기술하게 하였다. 자유기술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문항 생성을 방지하고 연구목적에 근접한 문장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하고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생활영역을 제시하고 영역별 대표적인 예문을 2~3개 제시한 뒤 의견을 기술하게 하였다. 기존 검사에서 사용한 문항과 일반인대상 자유기술조사에서 나온 문항을 합하여 총 320개의 문항 원집합이 마련되었다.

나. 문항선정 및 1차 설문문항

남성 성역할 갈등의 개념 및 기존 척도, 유사 척도 그리고 한국남성의 특성에 관한 관련문헌연구를 통해 필요한 개념을 숙지한 연구진과 남성 성역할 갈등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와 같이 총 320개 서술문의 내

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또, 1) 기존 검사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 2) 동일한 특성이나 갈등상황을 어순이 다르거나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는 문장은 제거했으며,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나 ‘남자는 울면 안 된다’처럼 기존의 요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남성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기술된 문항을 채택하는 과정을 밟았다. 군복무의 중요성과 가족의 생계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장이 많아 통합과 제거를 반복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총 85개 원문항이 구성되었다. 85개 원문항 중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한 문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구진과 전문가들에 의해 내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번에 걸친 재번역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체 85개 원문항에 대해 한국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우리 어법에 맞는지, 자연스런 문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수과정을 거쳤다.

다. 원문항의 측정개념과 요인구조

85개 원문항의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출발단계에서의 요인명은 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오닐(GRCS)과 아이슬러와 스키드모어(MGRCS)의 요인명을 참고로 하되, 한국적인 특성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성역할 갈등 검사는 크게 2개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여성성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남성 성역할을 억제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측면이다. 오닐은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역할이 억제되는 측면은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측정했으며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성공·권력·경쟁요인으로 측정했다. 여기서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6개의 요인을 설정했는데, 두 가지 개념에 따라 분류한다면,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은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관계의 3가지 요인으로, 남성성 이데올로기는 성공·권력·경쟁, 남성다움, 여성과의 관계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Ⅲ-1〉 85개 원문항의 구성

	요인명	주요구성요소	문항 수
남성성 이데올로기	성공·권력·경쟁	성공·권력·경쟁에 대한 태도 및 평가	16
	남성다움	가장의무, 가부장의식, 성적능력, 신체능력, 강한 체력, 조직적응	21
	여성과의 관계	여성에 대한 열등감, 여성과의 능력비교	12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	감정표현 억제	애정표현, 감정표현	17
	일·가정 양립 갈등	일(학업)과 가정(건강, 여가)양립	11
	남성과의 관계	남성과의 애정, 남성과의 우정	8

3. 예비조사 1

가. 조사설계

1) 조사목적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의 성역할 갈등과는 구분이 되는 문항들을 선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남녀의 성역할이 시대적으로 변모를 겪어 서로 간 수렴하기도 하고 짧게는 한 인간의 생애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 등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에는 엄연히 남녀에 대한 서로 다른 성역할 규범이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으므로 남성이 성역할 갈등을 일으키는 지점은 여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 검사는 양성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아니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남성 고유의 성역할 갈등 측정을 위해 여성 성역할 갈등과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자 특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자 200명, 성인여자 200명의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연령으로는 20대~60대까지였으며 연령대별 20% 정도씩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 이상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혼:미혼은 8:2의 비율이며, 맞벌이:홀벌이:미혼은 40:35:25의 비율이며, 계층은 상층 3.5%, 중간 70.5%, 하층 26.5%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개인소득수준은 99만원 이하가 35.8%, 100~199만원 이하 24.8%, 200~299만원 이하가 19.3%, 300~399만원 이하가 13.3%, 400만원 이상이 7.1%이다. 가구소득수준은 99만원 이하가 35.8%, 100~199만원 이하가 16.3%, 200~399만원 이하가 26.8%, 400~499만원 이하가 23.0%, 500만원 이상이 21.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Ⅲ-2〉 1차 예비조사 대상자 분포

(단위 : %)

	전체	사례 수(명)	비율(%)
		400	100.0
연령	19 - 29 세	78	19.5
	30 - 39 세	92	23.0
	40 - 49 세	91	22.8
	50 - 59 세	71	17.8
	60 세 이 상	68	17.0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36	9.0
	고등 학교 졸업	177	44.3
	전문 대재 이상	187	46.7
혼인상태	기 혼	297	74.3
	미 혼	86	21.5
	이혼/별거/사별	17	4.3
맞벌이여부	맞 벌 이	153	38.3
	외 벌 이	144	36.0
	미 혼	103	25.8

	전체	사례 수(명)	비율(%)
계층의식	상 층	14	3.5
	중 층	282	70.5
	하 층	104	26.0
개인소득	99 만원 이 하	143	35.8
	100 - 199 만원	99	24.8
	200 - 299 만원	77	19.3
	300 - 399 만원	53	13.3
	400 - 499 만원	15	3.8
	500만 원 이 상	13	3.3
가구소득	99 만원 이 하	14	3.5
	100 - 199 만원	36	9.0
	200 - 299 만원	65	16.3
	300 - 399 만원	107	26.8
	400 - 499 만원	92	23.0
	500만 원 이 상	86	21.5

나. 조사결과

1) 문항 선정 과정

문항 선정 과정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개별문항에 대한 평균값, 중간값 비교이며 2단계는 요인분석 후 요인가 비교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문항제거 원칙을 1) 남성의 문항 평균점수가 여성의 평균점수보다 더 낮은 경우 2) 개별문항 평균값이 6점 척도의 중간값인 3.5보다 낮은 경우로 설정했다.

1단계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으며, 남성의 문항별 평균값이 여성의 평균값보다 낮은 4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표 Ⅲ-3〉 문항 평균값이 낮아 제거된 문항

문항	남성 평균값	여성 평균값
2-4. 성관계 중에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3.41	3.44
2-5. 내 파트너에게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기 어렵다	3.40	3.45
2-9. 성관계를 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3.41	3.60
3-7.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은 억울하다	2.69	3.19

2단계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문항선정을 진행하였다. 1단계를 거친 81개 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21개 요인이 나왔다. 스크리 도표 분석을 통해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Oblimin) 방식으로 회전하여 요인가를 보았다. 선정기준으로 요인가 0.5미만을 설정했다. 이 기준에 의해 24개 문항이 제거되어, 2단계에서는 57개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표 Ⅲ-4〉 8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후 제거된 24개 문항의 성분행렬

	성분					
	1	2	3	4	5	6
4-12. 남자/여자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강요 받는다고 느낀다	0.486	0.202	0.144	0.102	0.36	-0.21
3-10. 아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배식하는 것은 불편하다	0.471	-0.045	0.296	0.224	0.031	-0.144
3-9. 가족의 병 간호를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0.468	-0.028	0.165	0.157	-0.053	-0.144
3-11. 학부모 회의나 학부모 활동(청소, 수업 참관, 교통 정리 등)에 참석하기가 불편하다	0.464	-0.091	0.228	0.283	0.104	-0.168
5-20. 필요할 때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으면 당황스럽다	0.442	0.102	-0.033	0.186	0.359	0.188
4-11. 체면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나누자고 하지 못한다	0.436	0.121	0.254	0.237	0.137	0.011
5-18. 성적 파트너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0.422	0.279	0.091	-0.065	0.385	0.193
5-6. 남자/여자들의 집단적인 문화(음주 등/운동 후 같이 밥 먹으러 가기 등)에 동참해야 한다	0.383	0.158	-0.157	0.243	0.14	0.278

40 ●●●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성 분					
	1	2	3	4	5	6
5-10. 국가나 정치 같은 대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0.344	0.303	0.169	0.231	-0.025	0.06
1-16. 남자/여자는 운동을 잘해야 한다	0.124	0.54	-0.115	-0.089	0.025	0.335
1-1.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0.128	0.456	-0.02	-0.034	0.141	0.33
5-11.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인정을 받는다	0.247	0.296	-0.003	0.15	-0.033	0.165
2-15. 말을 많이 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우려된다	0.03	0.236	0.421	0.367	0.018	-0.052
5-9.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0.242	0.199	0.012	0.49	0.084	0.017
5-7. 남자/여자들 사이의 위계는 따라야 한다	0.341	0.237	-0.034	0.405	-0.115	0.281
5-15. 손해를 보더라도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0.111	0.192	0.18	0.384	0.132	0.066
5-12. 국가가 전쟁과 같은 위기에 처하면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0.011	0.246	0.155	0.284	0.077	0.25
6-4. 다른 남자/여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0.063	-0.001	0.002	0.046	0.7	0.047
6-8. 다른 남성/여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0.266	0.177	0.142	0.057	0.576	-0.108
5-21. 성(性)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0.289	0.073	0.078	0.325	0.47	0.282
5-19. 상대가 섹스를 시도했을 때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으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느낀다	0.458	0.121	0.113	0.073	0.458	0.223
5-13.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의 우정은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0.102	0.144	0.118	0.309	0.009	0.436
6-2. 다른 남자/여자를 안아주는 것은 어렵다	0.286	0.046	0.171	0.137	0.235	0.401
5-14. 야망을 가져야 한다	-0.072	0.144	0.029	0.28	-0.067	0.393

3단계에서는, 축소된 57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13개 요인이 나왔으나 이론적 틀과 스크리 도표 검토에 의해 최적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3개의 문항이 나와서, 이를 제거하여 54개 문항이 되었다.

〈표 Ⅲ-5〉 요인분석 후 제거된 문항

	성 분					
	1	2	3	4	5	6
5-17. 성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다	.193	-.211	.251	.134	.224	.302
6-1. 다른 남자를 만지는 남자/여자를 보면 불편하다	.264	-.238	.103	.105	.196	.274
6-3.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190	-.118	.140	.175	.125	.272

3개 문항을 제거한 후 남은 54개 문항의 요인가를 보고자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수가 12개가 나왔다. 스크리 도표 상으로는 요인수가 6개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고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택하여 요인가를 보았다. 54개 문항의 요인가가 모두 0.5이상이므로 54개 문항 모두를 2차 예비조사에 사용할 문항으로 설정했다.

54개 문항으로 구성된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과 요인별 문항수를 보면, 제1요인은 남성우월 요인으로 명명했으며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요인은 성공·권력·경쟁 요인으로 명명했으며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요인은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명명했으며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요인은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으로 명명했으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요인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으로 명명했으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요인은 가장의무감 요인으로 명명했으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초기에 수집하여 구성했던 85개 원문항은 오늘이 개발한 37문항 4개 하위요인의 성역할 갈등 척도, 아이슬러 & 스키드모어가 개발한 40문항 5개 하위요인의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 그리고 한국적 성역할 갈등 특성이 반영된 연구진과 일반 성인이 개발한 문항이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었다.

1차 예비조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오늘이 개발한 4개

하위요인 중 4개 요인(성공·권력·경쟁,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갈등,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이 확인되었고, 아이슬러와 스키드모어가 개발한 5개 요인 중 1개 요인인 ‘여성에 복종’이 재구성되어 ‘남성우월’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장 한국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의무감’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여 6개 요인으로 분류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Ⅲ-6〉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구인 비교

한국형	GRCS
성공·권력·경쟁	성공·권력·경쟁
감정표현 억제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일·가정 양립 갈등
가장의무감	
남성우월	

54개 문항에 대한 전체신뢰도는 .930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6개 요인의 신뢰도도 .829~.930으로 상당히 높았다. 요인별 문항 수는 3~15개로 편차가 많은 편이다.

〈표 Ⅲ-7〉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별 신뢰도 및 문항 수 (1차 예비조사)

	전체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요인명	남성 성역할 갈등	남성 우월	성공·권력·경쟁	감정 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가장의무감
신뢰도 계수	.930	.922	.892	.865	.838	.829	.903
문항 수	54	15	14	11	6	5	3

4. 예비조사 2

가. 조사설계

1) 조사목적

1차 예비조사 결과 선정된 54문항에 대해,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요인구조 확인을 통한 타당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초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을 분석했다.

2) 조사대상 및 조사과정

전국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자 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1차 예비조사의 직접조사와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방식을 택했다. 웹조사 방식이지만 조사회사에 전국 범위의 패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인구를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춰 무작위로 추출했다. 조사는 2011.5.16~5.26의 11일간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연령으로는 20대~60대까지 연령대별로 20% 정도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26.3%, 전문대 이상이 72.8%로 전문대 이상이 많았다. 기혼:미혼은 7:3의 비율이었으며, 맞벌이:홀벌이:미혼은 28:37:35의 비율이며, 계층은 상층 4.5%, 중간 59.8%, 하층 35.0%로 구성되었다. 개인소득수준은 99만원 이하가 11.2%, 100-199만원 이하가 18.4%, 200-299만원 이하가 29.3%, 300-399만원 이하가 20.5%, 400만원 이상이 20.8%의 분포로 1차 예비조사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수준은 199만원 이하가 11.8%, 200-299만원 이하가 21.0%, 300-399만원 이하가 19.0%, 400-499만원 이하가 17.6%, 500만원 이상이 30.6%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Ⅲ-8〉 2차 예비조사 대상자 분포

(단위 : %)

	전체	사례 수(명)	비율(%)
		(800)	100.0
연령	19 - 29 세	(161)	20.1
	30 - 39 세	(175)	21.9
	40 - 49 세	(182)	22.8
	50 - 59 세	(151)	18.9
	60 세 이 상	(131)	16.4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2)	1.5
	고등 학교 졸업	(206)	25.8
	전문 대재 이상	(582)	72.8
혼인상태	기 혼	(520)	65.0
	미 혼	(239)	29.9
	이혼/별거/사별	(41)	5.1
맞벌이여부	맞 벌 이	(226)	28.3
	외 벌 이	(294)	36.8
	해당없음(미혼)	(280)	35.0
계층의식	상 층	(36)	4.5
	중 층	(478)	59.8
	하 층	(286)	35.8
개인소득	소 득 없 음	(46)	5.8
	99 만원 이 하	(43)	5.4
	100 - 199 만원	(147)	18.4
	200 - 299 만원	(234)	29.3
	300 - 399 만원	(164)	20.5
	400 - 499 만원	(87)	10.9
	500만 원 이 상	(79)	9.9
가구소득	소 득 없 음	(14)	1.8
	99 만원 이 하	(16)	2.0
	100 - 199 만원	(64)	8.0
	200 - 299 만원	(168)	21.0
	300 - 399 만원	(152)	19.0
	400 - 499 만원	(141)	17.6
	500만 원 이 상	(245)	30.6

나. 조사결과

문항양호도와 요인구조 확인을 통한 타당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초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요인 간 상관을 검토했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가가 1이상인 요인이 8개가 나왔으며 전체변량의 57.4%를 설명해 주고 있었으나, 스크리 도표 상으로 6개가 적합한 요인수로 판단되었다.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전체 변량의 52.8%를 설명해주고 있었으며 고유치 순으로 보면 제1요인 27.18%, 제2요인 7.98%, 제3요인 6.19% 제4요인 4.89% 제5요인 3.68%, 제6요인이 2.90%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먼저 요인가가 0.5이하인 문항을 제거기준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표 Ⅲ-9〉 54문항 중 제거된 1개 문항의 구조행렬

	성 분					
	1	2	3	4	5	6
2-11. 여자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강요 받는다고 느낀다	.490	.288	.366	-.356	-.306	-.084

이처럼 이론적 틀과 스크리 도표를 참조하여 6개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가가 .5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53개의 문항이 살아남았다. 이 때 전체 문항 수가 53개로 너무 많아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요인별로 문항 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문항 축소 과정을 진행하였다. 문항 축소를 위해 1) 요인별로 최대 문항 수를 8개로 하고 2) 문항 제거는 요인 부하량 크기 순서로 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 38개 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선정된 38개 문항을 가지고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요인가가 1 이상인 요인이 6개가 추출되었다. 그런데 6개 요인에 속한 개별문항 중에서 이론적 틀에 의해 감정표현 억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개발

되었고 이제까지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항상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분류되어 왔던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문항이 여기서는 남성과의 애정표현 억제요인으로 분류가 되었다. <표 III-10>에서 살펴볼 수 있듯, 요인가는 감정표현 억제 요인과 남성과의 애정표현 억제요인 모두와 연관되어 있어 부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제거하고 37 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표 III-10> 38문항 중 제거된 1개 문항의 구조행렬

	성 분					
	1	2	3	4	5	6
4-11.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256	.353	.554	.243	.565	.148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별 문항 수를 보면, 성공·권력·경쟁 요인 14문항이 8문항으로, 남성우월 요인의 16문항이 8문항으로, 감정표현 억제 요인 11문항이 7문항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 6문항이 6문항으로, 가장의무감 요인 3문항이 3문항으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 5문항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문항 수 차이도 3~15개에서 3~8개로 축소되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7이었고, 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도 .813~.91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11>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최종 37문항의 신뢰도

요인명	Cronbach's α	요인명	Cronbach's α
성공·권력·경쟁	.883	일·가정 양립 갈등	.867
남성우월	.913	감정표현 억제	.839
가장의무감	.813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833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927	

37문항의 검사는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명변량은 60.2%로 2차 예비조사 시작시점에 54문항에 대한 6요인의 설명변량인 52.8%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1요인(남성우월)의 설명변량은 28.2%, 제2요인(일·가정 양립 갈등)은 9.0%, 제3요인(성공·권력·경쟁)은 7.7%, 제4요인(감정표현 억제)은 6.4%, 제5요인(가장의무감)은 4.8%, 제6요인(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은 3.9%였다. 직접 오블리민으로 회전방식을 지정하여 요인가를 구해본 결과 0.546~0.861로 전 문항이 0.5이상이었다.

〈표 Ⅲ-12〉 37문항의 구조행렬

	성 분					
	1	2	3	4	5	6
2-4.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850					
2-1.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841					
2-2.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825					
2-3. 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	.801					
2-8. 직장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779					
2-5. 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768					
2-10. 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	.739					
2-6. 가사 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	.681					
3-7.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 (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837				
3-8.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826				
3-6.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810				

48 ●●●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성 분					
	1	2	3	4	5	6
3-9. 가사와 직장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		.759				
3-5.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726				
3-4.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662				
4-3.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794			
4-1. 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			.752			
4-4.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742			
4-10.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700			
4-5. 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689			
4-2. 나는 남들의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667			
4-8.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609			
1-11.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808		
1-1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783		
1-8.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775		
1-10.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724		
1-5. 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720		
1-7.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713		
1-1.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703		
1-1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686		
4-15.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831	

	성 분					
	1	2	3	4	5	6
4-12.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771	
4-16. 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767	
4-14.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759	
4-13. 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719	
3-1.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881
3-2.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840
3-3.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806
초기고유값	10.462	3.330	2.850	2.369	1.784	1.470
설명변량(%)	28.276	9.001	7.701	6.402	4.822	3.972
설명변량(누적, %)	28.276	37.277	44.978	51.380	56.203	60.175

- * 요인명: 1. 남성우월 2. 일·가정 양립 갈등 3. 성공·권력·경쟁 4. 감정표현 억제 5. 가장의무감 6.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 * 요인부하량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해당요인이 4개의 좌표면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님(이순목, 2000)

최종문항에 대한 문항-요인 간 상관계수, 문항-전체 척도 간 상관계수는 0.37~0.88로 모두 0.3이상 이었다.

〈표 Ⅲ-13〉 최종 선정된 37개 문항의 문항-요인 상관관계

요인명	성역할 갈등 검사 최종 문항	요인	전체 검사
성공· 권력· 경쟁	1.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699	.454
	2. 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710	.468
	3.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728	.522
	4.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787	.583
	5.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730	.535
	6.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809	.607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787	.585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675	.484
남성 우월	1.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832	.623
	2.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813	.587
	3. 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	.805	.643
	4.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843	.622
	5. 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762	.571
	6. 가사 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	.702	.574
	7. 직장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796	.658
	8. 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	.761	.629
가장 의무감	1.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884	.375
	2.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854	.434
	3.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821	.364
일· 가정 양립 갈등	1.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681	.473
	2.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747	.520
	3.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803	.504
	4.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821	.504
	5.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823	.558
	6. 가사와 직장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	.771	.611

요인명	성역할 갈등 검사 최종 문항	요인	전체 검사
감정 표현 억제	1. 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	.749	.476
	2. 나는 남들의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677	.490
	3.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761	.439
	4.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738	.515
	5. 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695	.544
	6.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653	.536
	7.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717	.465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	1.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768	.459
	2. 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749	.542
	3.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777	.563
	4.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823	.527
	5. 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759	.419

5. 본조사

가. 조사설계

1) 조사목적

수집된 원문항을 가지고 1, 2차에 걸친 예비조사과정을 거치면서 선정된 37개 문항의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에 대해 문항들의 양호성을 알아보고, 평가도구에 필요한 신뢰도,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역시 남성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도구 및 조사대상

가) 조사도구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6개 요인, 3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오닐의 성역할갈등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아이슬러와 스키드모어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을 참조하였으며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인으로부터 문항을 수집하였다. 응답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일치한다”까지 6점 척도를 사용한다.

②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는 여성성 문항 20, 남성성 문항 20, 긍정성 문항 20,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진 성별 속성 측정 검사이다. 이는 Bem(1974)의 성역할검사(Bem Sex Role Inventory)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 척도의 신뢰도(Cronbach)는 남성성 .91, 여성성 .84, 긍정성 .7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척도만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각각 .913, .881이다.

③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한국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양희와 정경아(1999)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의 검사들은 다양한 측면의 남녀평등의식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개발된 성평등 관련 조사를 종합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능력 및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젠더역할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리, 인권, 자유에 대한 태도, 여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김양희, 정경아, 1999)’을 측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태도 척도’, ‘현대적 성차별주의 척도’ 및 ‘신 성차별주의 척도’의 목적을 종합하고 있다. 신뢰도는 남녀에게 실시하였을 때 .9461, 남성에게만 실시하였을 때 .9314였다.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21이다.

④ 한국형 다면 성별 의식 검사

다면 성별 의식 검사도 성평등의식과 관련된 검사로서 정확히 말하면 성평등의식의 반대 측면인 성차별의식을 적대적 의식과 온정적 의식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다. 안상수 외가 2007년 개발한 40문항짜리 검사로 적대적 의식과 온정적 의식이 각각 20문항이다. 본 조사에서는 축약형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적대적 성별의식 .86, 온정적 성별의식 .77로 보고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각각 .814, .730이다.

⑤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r-miologic Studied-Depression: CES-D)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한국인에 맞게 수정보완한 우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CES-D는 20문항의 자가-보고형 척도로 지난 1주 동안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로(2~3일)’ 1점, ‘상당히(4~5일)’ 2점, ‘대부분(6~7일)’ 3점으로 배점하였다. 총점은 0~60점 범위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정상 성인은 9.25점이며, 16점이상은 우울로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조사에서는 .88이었다.

⑥ 자존감 척도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검사(심리척도핸드북, 1994)를 사용하였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은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원도구 개발 당시 .92였으며, 전병재(1974)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62로 보고되었다. 본조사에서는 .704이다.

⑦ 영역별 스트레스

영역별 스트레스는 이수연 외(2008)에서 성인 남성들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영역-재정, 직장, 건강, 부부/애정 관계, 부모 역할을 선정하여 연구자들이 각 영역별로 세 개씩, 15개 문항을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가운데 재정, 부부관계, 부모역할은 Lantz, House, Mero & Williams(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맞게 변형하였다. 반응 범위는 5점 척도이고 값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영역 스트레스의 신뢰도는 .84, .83, .51, .79, .65로 보고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영역별로는 각각 .877, .873, .570, .789, 660이고 전체는 .830이다.

⑧ 삶의 만족도

Diener 등(1985)이 개발한 다섯 문항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잘 사는 것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인 견해들 중에서, 협의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에 초점을 두며 긍정적인 정서나 외로움 같은 개념과는 거리를 둔다. 이 척도의 점수는 잘 사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이나 특정 개인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개발되었으나 다른 연령대의 집단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척도의 다른 잠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값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833의 신뢰도를 보였다.

나)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전국거주 19세 이상 성인남자 1,8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을 하여 임의표집 되었다. 무직, 퇴직, 또는 사무직이 과대표집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공식통계를 통해 산출한 직업통계에 따라 직업별 할당을 적용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연령으로는 20대~60대까지 연령대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40.9%, 전문대 이상이 49.0%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기혼:미혼은 7:3의 비율이었으며, 맞벌이:홀벌이:미혼은 30:40:30의 비율이었고, 계층은 상층 4.6%, 중간 62.9%, 하층 32.5%로 구성되었다. 개인소득수준은 99만원 이하가 23.9%, 100-199만원 이하가 21.7%, 200-299만원 이하가 27.2%, 300-399만원 이하가 14.8%, 400만원 이상이 12.3%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구소득수준은 199만원 이하가 19.9%, 200-399만원 이하가 43.4%, 400-599만원 이하가 24.6%, 600만원 이상이 11.0%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Ⅲ-14〉 본조사 대상자 분포

(단위 : %)

	전 체	사례 수(명)	비율(%)
		(1800)	100.0
연령	19 세 - 29 세	(358)	19.9
	30 세 - 39 세	(385)	21.4
	40 세 - 49 세	(417)	23.2
	50 세 - 59 세	(329)	18.3
	60 세 이 상	(311)	17.3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231)	12.8
	고등학교 졸업	(686)	38.1
	전문 대재 이상	(881)	48.9
	모름 / 무 응 답	(2)	0.1
직업	농 / 임 / 어 업	(64)	3.6
	자 영 업	(294)	16.3
	판매/영업/서비스직	(198)	11.0
	생산/기능/노무직	(417)	23.2
	사무/관리/전문직	(432)	24.0
	학 생	(98)	5.4
	무 직 / 퇴 직	(297)	16.5
혼인상태	기 혼	(1269)	70.5
	미 혼	(485)	26.9
	이혼/별거/사별	(46)	2.6

	전 체	사례 수(명)	비율(%)
자녀유무	자 녀 있 음	(1261)	70.1
	자 녀 없 음	(54)	3.0
	해당없음(미혼)	(485)	26.9
맞벌이여부	맞 벌 이	(555)	30.8
	외 벌 이	(714)	39.7
	해당없음(미혼)	(531)	29.5
계층의식	상 층	(83)	4.6
	중 층	(1132)	62.9
	하 층	(585)	32.5
개인소득	소 득 없 음	(307)	17.1
	1 - 99 만원	(123)	6.8
	100 - 199 만원	(390)	21.7
	200 - 299 만원	(490)	27.2
	300 - 399 만원	(267)	14.8
	400 - 499 만원	(108)	6.0
	500 만 원 이상	(114)	6.3
	무 응 답	(1)	0.1
가구소득	소 득 없 음	(14)	0.8
	1 - 199 만원	(343)	19.1
	200 - 399 만원	(781)	43.4
	400 - 599 만원	(442)	24.6
	600 - 799 만원	(122)	6.8
	800 - 999 만원	(38)	2.1
	1000만원 이 상	(37)	2.1
	모름/ 무 응 답	(23)	1.3
거주지규모	대 도 시	(834)	46.3
	중소 도시 동부	(637)	35.4
	중소도시읍면부	(329)	18.3

나. 조사결과

1) 기초 문항 분석

본조사에서 37문항의 신뢰도계수는 .899로 양호하게 나왔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37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가 1이상인 요인이 6개가 나왔으며 설명변량은 56.5%로 나왔다.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808~.886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 Ⅲ-15〉 본조사 37문항의 신뢰도

요인명	Cronbach's α	요인명	Cronbach's α
성공·권력·경쟁	.826	일·가정 양립 갈등	.857
남성우월	.886	감정표현 억제	.808
가장의무감	.848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867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899	

2)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검사를 받은 사람을 다시 검사하여 두 점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사의 개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신뢰도 계수를 안정도 계수(coefficient of stability)라고도 부른다(안상수 외, 2007, 94). 재검사의 대상은 본조사의 전체 표본수의 5%에 해당하는 9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시기는 본조사 종료 후 20일 경과시점인 8월5일~8월10일 사이에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인 안정도계수는 .877로 양호하였다.

3)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특성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를 구성하는 37문항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오닐의 성역할 갈등 척도 37문항과 비교한 것이 <표 Ⅲ-16>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오닐은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은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한국형에 추가된 2개 요인은 “가장의무감” 요인과 “남성우월” 요인이다. 한국형 37문항과 오닐의 37문항 중 22개 문항은 동일하다. 즉 4개의 동일한 요인 중 감정 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간의 애정행동 억제 3개 요인에서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이 동일하며, 성공·권력·경쟁 요인에서는 7개 문항이 동일하여 22개 항목은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한 문항을 자세히 보면 문장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에 맞도록 수정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하다. 오늘의 척도에 없는 문항은 1) 성공·권력·경쟁 요인에 1개 문항, 2) 감정표현 억제에 2개 문항, 3) 일·가정 양립 갈등에 1개 문항, 4) 신설된 문항으로 가장의무감요인의 3개 문항 전부와 남성우월 요인의 8개 문항 전부로 15개 문항이다.

〈표 Ⅲ-16〉 한국형 척도와 오늘의 척도(GRCS) 비교

한국형 척도		오늘 척도(GRCS)	
	성공·권력·경쟁		성공·권력·경쟁
1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 남성 개념의 일부이다
2	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2	항상 잘 하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3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3	남들과 경쟁하는 것은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4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4	승리하는 것이 나의 가치와 개인적 진가의 척도이다
5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5	나는 남들이 나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수행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때때로 우려한다
6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6	다른 남자들보다 영리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때때로 나의 개인적 가치를 직업적 성공에 의해 규정한다
			직업에서 지위 단계를 오르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나는 타인의 가치를 그들의 성취와 성공에 의해 판단한다
			나는 실패를 할 것과 그리고 그것이 나는

한국형 척도		오닐 척도(GRCS)	
			남성으로서의 잘 나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한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자주 느낀다
			나는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분투한다
감정표현 억제		감정표현 억제	
1	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	1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2	나는 남들의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2	나는 격한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3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3	나는 소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
4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4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묘사하기 위해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렵다
5	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5	내 감정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다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남들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느낀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성관계를 갖는 동안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남들에게 나는 강한 감정을 말하는 것은 나의 성적 행위의 일부가 아니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일·가정 양립 갈등		일·가정 양립 갈등	
1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1	나의 바쁜 일과와 내 건강을 살피는 것 사이에 분열을 느낀다
2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2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3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3	일이나 학습에의 욕구 때문에 가족이나 여가가 너무 방해를 받는다
4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4	직장이나 학교가 내 생활의 다른 부분(가정, 건강, 여가)을 자주 방해한다
5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5	직장이나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과로, 스트레스가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친다
	가사와 직장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		내 커리어, 직업 혹은 학교는 나의 여가 시간이나 가정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형 척도		오닐 척도(GRCS)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1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1	다른 남성들에게 감정을 가지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2	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2	다른 남성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3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3	다른 남성에게 나의 감정을 보이는 것이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하는 생각에 이를 망설이게 된다
4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4	다른 남성들과 너무 사적이 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5	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5	다른 남성들이 나에게 지나치게 친밀하면 그들의 성적 경향을 궁금하게 만든다
			내 사랑을 다른 남성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다른 남자를 포옹하는 것은 어렵다
가장의무감			
1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2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3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남성우월			
1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2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3	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		
4	여성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5	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6	가사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		

한국형 척도		오닐 척도(GRCS)	
7	직장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8	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위에 있어야 한다		

각 요인별 상관관계는 <표 Ⅲ-17>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요인 간 상관은 .109에서 .430사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가정의무감과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Ⅲ-17> 요인 간 상관관계

	성공·권력·경쟁	남성우월	가정 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성공·권력·경쟁	1					
남성우월	.367**	1				
가정의무감	.114**	.109**	1			
일·가정 양립갈등	.269**	.192**	.281**	1		
감정표현 억제	.139**	.365**	.149**	.256**	1	
남성과의 애정행동	.247**	.312**	.043	.280**	.430**	1
성역할 갈등 검사	.624**	.708**	.345**	.612**	.649**	.643**

** $p < .01$.

6. 축약형 개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37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축약형을 개발하였다. 축약형 개발의 원칙은 1) 문항 수는 6개 요인별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며 2) 요인 부하량 순으로 정했다.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회전을 지정하여 요인별로 부하량이

62 ●●●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큰 순서로 2개 문항씩 추출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된 축약형을 만들었다.

축약형의 문항은 <표 III-18>과 같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03으로 양호하였다.

<표 III-18>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12문항)

요인	문항
성공·권력·경쟁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감정표현 억제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일·가정 양립갈등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남성우월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장 의무감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IV

검사의 타당도

- | | |
|-----------|----|
| 1. 구인 타당도 | 65 |
| 2. 준거 타당도 | 80 |

1. 구인 타당도

가. 변별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

이론 부분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을 다룬 성역할 검사와는 변별 타당도(discriminative validity)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 타당도 측정을 위해 본조사에 한국형 성역할 검사(정진경, 1990)를 같이 실시하였다. 한국형 성역할 검사는 앞에서 언급한 벰(1974)의 성역할 검사(Bem Sex Role Inventory)에 기반하여 한국의 맥락에 맞게 개발한 검사로서 남성성 문항 20개, 여성성 문항 20개, 그리고 긍정성 문항 20개로 이루어져 있다. 변별 타당도를 보기 위해 성역할검사의 남성성 문항과 본 검사의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r = -.003(p = .908)$ 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본 검사는 변별 타당도를 만족시키며 한국형 성역할 검사와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1999)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안상수 외, 2007)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능력 및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젠더 역할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리, 인권, 자유에 대한 태도, 여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태도(김양희, 정경아, 42)”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성역할 태도 검사와 성차별 태도 검사, 성차별주의 척도 등을 종합하여 개발되었다. 이처럼 남녀평등의식이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측정대상 개념은 성역할 갈등 검사와 일정 부분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결과 두 검사의 상관관계는 $r = .505(p = .000)$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와 수렴타당도를 만족시켜 주었다. 다면성별의식검사도 성평등의식과 관련된 검사로서 정확히 말하면 성평등의식의 반대 측면인 성차별의식을 적대적 의식과 온정적 의식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다. 본 검사와의 상관관계는 적대적 성별의식이 $.411(p < .01.)$, 온정적 성별의식이 $.182(p <$

.01.)로 모두 유의미한 관계이며 적대적 성별의식과의 상관이 더 높았다. 이로서 다면성별의식검사와의 관계에서도 수렴타당도가 성립하였다.

나. 구조 방정식 모형 적합도

다음으로 III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조사 II의 결과를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6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처럼 6요인을 가진 구인이 검사에 제대로 적용, 측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즉,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 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평가(홍세희, 2000, 162)”하는 작업이다. 보통 구인타당도 측정의 일환으로 모형 적합도 분석은 “(1) 이론 모형의 개발, (2) 실제 자료에 대한 모형의 적용, (3) 모형의 평가, (4) 필요시 모형의 수정, (5) 모형의 재평가(ibid.)”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론적 틀과 예비조사 결과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본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용과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으면 모형을 수정하고 재평가가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것은 모형 수정(예를 들어 문항 수정과 이에 따른 요인분석)은 예비조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교차 타당도(cross-validation)는 본조사 자료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통상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지수가 너무 많아 어떤 지수를 사용해야 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동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구조방정식 분석 패키지인 AMOS, LISREL, M-PLUS 등이 제공하는 지수는 AIC, RMSEA, NFI, NNFI, GFI, AGFI, RFI, IFI, ECVI, CFI, Hoelter's index 등이 있는데 홍세희는 NNFI(혹은 TLI), CFI, RMSEA를 바람직한 지수로 추천하고 있다(ibid., 161-162).

NNFI(혹은 TLI)는 가장 오래된 적합도 지수의 하나로 Bentler와 Bonnett(1980)이 Tucker와 Lewis(1973)의 공식을 발전시킨 것이어서 Tucker-Lewis Index(TLI)라고도 불린다(홍세희., 166). NNFI는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얼마나 좋은지 나타내므로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이며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NNFI는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가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할수록 값이 커지며, 따라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해도 그 모형이 필요이상을 복잡하면 NNFI의 값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홍세희는 NNFI는 값이 1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합도 지수의 조건을 잘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CFI는 NNFI 지수가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NNFI 공식과 매우 비슷하지만 표본오류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값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홍세희는 CFI의 강점을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간명성(parsimony)의 여부를 잘 파악하지 못하므로 NNFI나 RMSEA같이 간명성을 측정하는 지수와 같이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ibid., 167).

NNFI와 CFI가 상대적 적합도 지수(최악의 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값)인데 반해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이다 (ibid., 165; 167). RMSEA는 오래 전에 개발되었으나 90년대부터 새롭게 주목받게 된 지수로서 모형오류와 간명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RMSEA의 값은 하한선이 0이고 상한선은 제한되지 않는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이며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10$ 이며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 > .10$ 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 & Cudeck, 1993). RMSEA의 장점은 모형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이 가능하다는 것과 신뢰구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보통 신뢰구간을 90%로 설정하는데 이 안에서 구간이 좁으면 그만큼 RMSEA값의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다. RMSEA를 이용한 가설검증은 너무 엄격한 χ^2 검증에 비해 현실적이어서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이 외에도 χ^2 검증이 있는데 이는 구조방정식이 개발된 초기에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으로 모형오류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진다. 모형오류란 모형과

실제 자료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모형을 통해 재생된 자료”와 실제 자료를 비교하여 차이가 크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아 모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다(ibid., 163).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모형은 변수간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한다(ibid., 164)”는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연구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χ^2 값이 모형 오류뿐만 아니라 표본크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정도의 모형 오류를 가져도 표본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세희는 χ^2 이 더 이상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신 NNFI나 CFI 같은 앞의 적합도 지수를 쓸 것을 제안한다.

자유도는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대 가능한 미지수와 이론 모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간의 차이 값을 말한다(ibid., 163). 따라서 미지수가 적을수록 자유도는 커지며 이는 모형이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장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II를 통해 37문항을 추출하였다. 37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III장에 제시하였다. 본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37문항의 모형 적합도는 <표 IV-1>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RMSEA는 .047로 .05보다 작아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신뢰구간도 .045에서 .048로 좁다고 할 수 있다. CFI도 .912로 역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NNFI도 .905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RMSEA, CFI, NNFI(TLI) 지수를 보았을 때 이 연구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검사의 모형 적합도

37문항 CFA	χ^2	df	GFI	NNFI(TLI)	CFI	RMSEA
	3018.723	614	.913	.905	.912	.047(.045-.048)

다음은 축약형 12문항에 대한 모형 적합도이다. <표 IV-2>에서 보는 것처럼 GFI, NNFI, CFI가 모두 0.9를 넘고 RMSEA는 .023으로 전체 검사보다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축약형 검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축약형 검사의 모형 적합도

12문항 CFA	χ^2	df	GFI	NNFI(TLI)	CFI	RESEA
	76.712	39	.993	.989	.994	.023(.015-.031)

다. 구인 동등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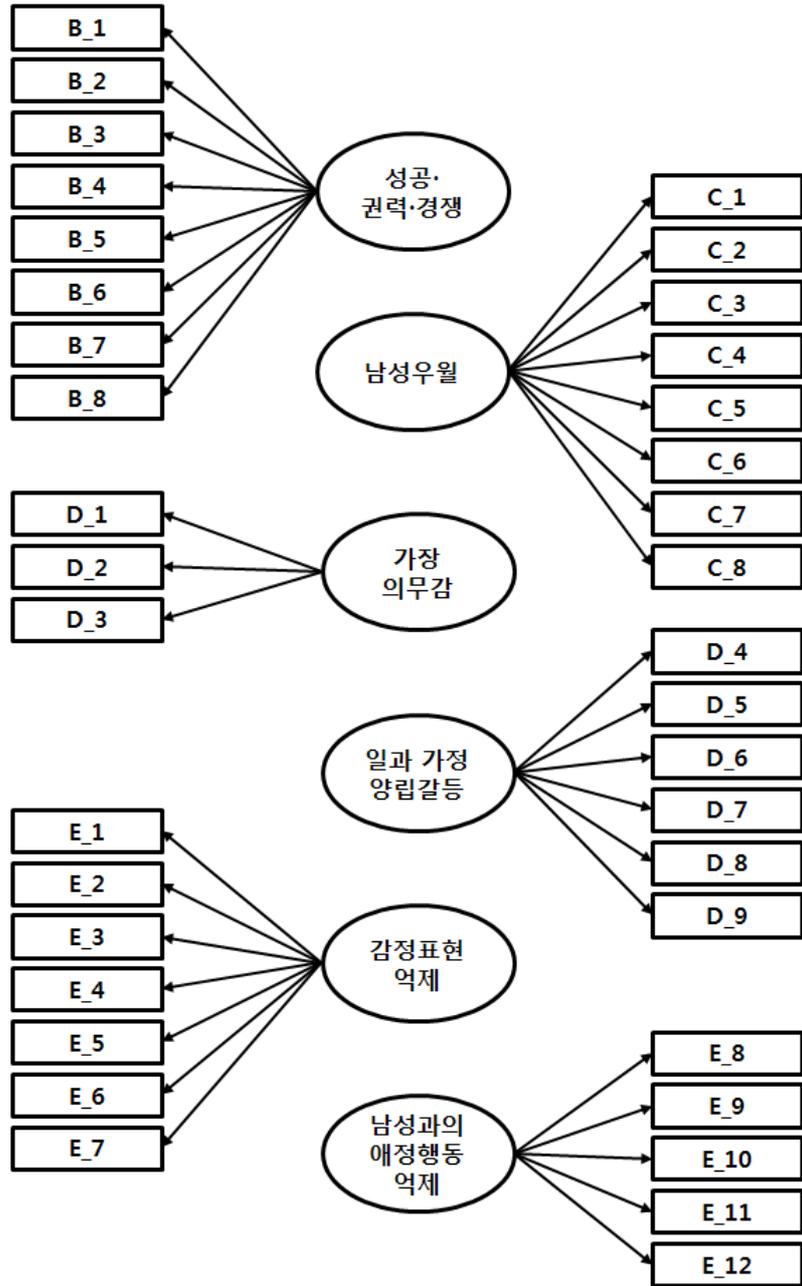
구인 동등성은 개발된 연구모형이 모든 집단에서 다른 모형(경쟁 모형)들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형태 동일성), 다양한 집단에서 동일한 요인구조를 측정하는지(측정 동일성), 그리고 잠재 구인에 기반한 가치와 관찰 변수의 가치가 동일한지(절편 동일성)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세 동일성 검증은 위계적이어서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의 순으로 진행되는 동일성을 만족시켜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은 기저모형(baseline) 구조가 여러 집단을 거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집단 간 요인부하 패턴의 차이를 본다. 기저 모형이란 측정된 한도에 대한 집단 간 불변성 구속성이 없으므로 집단 간 한도의 차이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Hong et al., 2003, 640). 만약 집단 간 한도에서 동일한 패턴의 가설, 즉 형태 동일성을 지지하지 않으면 측정 동일성이나 절편 동일성처럼 더욱 제한적인 모델의 지지는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형태 동일성은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다.

측정 동일성은 다양한 집단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복수 집단에서 얻어진 측정량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검증한다.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은 잠재 변수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례는 측정 변수에서도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측정 변수에 있어서의 집단 차이값은 잠재 변수에 있어서의 평균값의 차이에서 유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측정변수의 절편(intercept)이 집단 간에 동일할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분석 패키지인 AMOS 1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형태 동일성



[그림 IV-1]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도구의 모형

본 검사의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을 40세 전후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는 성별 역할 갈등 점수의 집단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20, 30대와 40, 50, 60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모형은 4요인과 5요인으로 설정하였다. 4요인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본 검사의 모델이 되는 오늘의 성역할 갈등 검사(Gender Role Conflict Scale, 1986, 이론 부분 참조)가 4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요인 모형은 가장 의무감 요인은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으로 남성간의 애정표현 억제 요인은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묶여서 성공·권력·경쟁/남성우월/일·가정 양립 갈등/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요인 모형은 남성간의 애정표현 억제 요인이 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묶여서 성공·권력·경쟁/남성우월/가장 의무감/일·가정 양립 갈등/감정표현 억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IV-3〉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연령 집단	모형	χ^2	df	NNFI(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19-39세 집단 (N=743)	4요인 모형	3658	623	.729	.746	.081(.078-.084)
	5요인 모형	2778	619	.806	.819	.069(.066-.071)
	6요인 모형	1957	614	.878	.888	.054(.052-.057)
40-88세 집단 (N=1057)	4요인 모형	4276	623	.741	.762	.075(.072-.077)
	5요인 모형	3287	619	.813	.826	.064(.062-.066)
	6요인 모형	2068	614	.897	.905	.047(.045-.050)
전체 집단 (N=1800)	4요인 모형	7272	623	.741	.758	.077(.075-.079)
	5요인 모형	5137	619	.823	.835	.064(.062-.065)
	6요인 모형	3019	614	.905	.912	.047(.045-.048)

그 결과 <표 IV-3>에서 보는 것처럼 40세 미만과 40세 이상 집단, 그리고 전체에서 6요인 모형이 카이값, 자유도, RMSEA값은 가장 작고 NNFI와 CFI값은 가장 커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태 동일성에서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2) 측정 동일성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저모형(baseline)의 χ^2 값과 자유도를 측정 동일성 모형의 그것과 비교하여 두 모형의 χ^2 값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는 형태 동일성 측정 시 비교집단의 χ^2 값과 자유도를 모두 합한 값이다. 측정 동일성 모형은 비교집단 사이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것이다. <표 IV-4>에서 보는 것처럼 χ^2 검증결과는 χ^2 의 차이값이 53.722, 자유도 차이 32, $p < .01$ 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서 χ^2 검증에 의한 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동일성 검증에서 χ^2 검증은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샘플 크기에 따라 값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가진다(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teenkamp & Baumgartner, 1998, Hong et al., 2003, 645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기서도 NNFI(TLI)와 RMSEA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2의 NNFI, RMSEA 지수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3) 절편 동일성

다음으로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완전 절편 동일성은 두 집단에 걸쳐 모든 문항의 절편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역시 먼저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와서 χ^2 검증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NNFI(TLI)와 RMSEA를 검토한 결과 NNFI 지수가 약간 나빠졌다. 그런데 절편 동일성은 반드시 완전 절편 동일성, 즉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Bryne, Shavelson, & Muthen, 1989; Steenkamp & Baumgartner, 1998, Hong et al., 2003, 646에서 재인용). 즉, 절편이 동일하지 않은 문항의 동일성 제약을 풀어주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만 절편 동일성 검증을 하는 부분 절편 동일성만 만족시키면 이는 절편 동일성 검증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안상수 외, 2007)의 제안대로 AMOS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하여 절편이 동일하지 않은 11개 문항의 동일성 제약을 풀어

주었다. 그 결과 <표 IV-4>에서 보는 것처럼 χ^2 검증은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NNFI와 RMSEA 지수는 약간 향상하여 부분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IV-4>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NFI(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4025	1228	.889	.036(.034-.037)
모형2: 측정동일성	4080	1259	.891	.035(.034-.037)
모형3: 측정 및 완전절편 동일성	4225	1290	.889	.036(.034-.037)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 동일성	4136	1280	.891	.035(.034-.036)
모형5: 측정, 부분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4212	1286	.889	.036(.034-.037))

<표 IV-5>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χ^2 차이 검증

	χ^2 차이	df 차이	유의도
모형 1과 모형 2	55	31	$p = .006$
모형 2와 모형 3	145	31	$p = .006$
모형 2와 모형 4	56	21	$p = .000$
모형 4와 모형 5	76	6	$p = .000$

4) 다른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

지금까지 40세 전, 후 집단 비교를 통해 구인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연령에 의한 집단 구분 외에 성역할 갈등에 있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집단 구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혼인 여부, 거주 지역, 학력에 따른 집단도 남성 성역할 갈등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남성 성역할 갈등은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대도시에 거주하느냐 읍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혹은 대학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 여부도 중요한데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나 가족 특히 배우자에 대한 감정표현 등

에 있어 결혼이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여부, 지역규모, 학력수준에 대해서도 구인 동등성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가) 혼인 여부별

먼저, 기혼과 미혼 집단별 요인구조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가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그리고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IV-6>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기/미혼집단	모형	χ^2	df	NNFI(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기혼 집단 (N=1315)	4요인 모형	5311	623	.745	.761	.076(.074-.078)
	5요인 모형	4114	619	.808	.822	.066(.064-.067)
	6요인 모형	2452	614	.898	.906	.048(.046-.050)
미혼 집단 (N=485)	4요인 모형	2592	623	.729	.747	.081(.078-.084)
	5요인 모형	2017	619	.806	.820	.068(.065-.072)
	6요인 모형	1608	614	.861	.872	.058(.054-.061)
전체 집단 (N=1800)	4요인 모형	7272	623	.741	.758	.077(.075-.079)
	5요인 모형	5137	619	.823	.835	.064(.062-.065)
	6요인 모형	3019	614	.905	.912	.047(.045-.048)

<표 IV-7> 두 집단(기혼, 미혼)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NFI(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4060	1228	.888	.036(.035-.037)
모형2: 측정동일성	4101	1259	.890	.035(.034-.037)
모형3: 측정 및 완전절편 동일성	4219	1290	.890	.036(.034-.037)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 동일성	4194	1287	.890	.035(.034-.037)
모형5: 측정, 부분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4277	1293	.888	.036(.035-.037)

〈표 IV-8〉 두 집단(기혼, 미혼) χ^2 차이 검증

	χ^2 차이	df 차이	유의도
모형 1과 모형 2	41	31	$p = .106$
모형 2와 모형 3	118	31	$p = .000$
모형 2와 모형 4	93	28	$p = .000$
모형 4와 모형 5	83	6	$p = .000$

(나) 지역규모별

지역규모에 따른 구인 동등성은 <표 IV-9>와 같이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성역할 갈등 검사의 평균점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지역규모별 분석에서도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그리고 부분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IV-9〉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도시규모 집단	모형	χ^2	df	NNFI(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대도시 (N=834)	4요인 모형	4044	623	.723	.741	.081(.079-.084)
	5요인 모형	3055	619	.802	.816	.069(.066-.071)
	6요인 모형	2099	614	.878	.888	.054(.051-.056)
중소도시 (N=966)	4요인 모형	4288	623	.733	.750	.078(.076-.080)
	5요인 모형	3146	619	.815	.828	.065(.063-.067)
	6요인 모형	1969	614	.900	.908	.048(.045-.050)
전체 집단 (N=1800)	4요인 모형	7272	623	.741	.758	.077(.075-.079)
	5요인 모형	5137	619	.823	.835	.064(.062-.065)
	6요인 모형	3019	614	.905	.912	.047(.045-.048)

〈표 IV-10〉 두 집단(대도시, 중소도시)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NFI(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4068	1228	.889	.036(.035-.037)
모형2: 측정동일성	4115	1259	.890	.036(.034-.037)
모형3: 측정 및 완전절편 동일성	4186	1290	.893	.035(.034-.037)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 동일성	4146	1285	.894	.035(.034-.036)
모형5: 측정, 부분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4152	1290	.894	.035(.034-.036)

〈표 IV-11〉 두 집단(대도시, 중소도시) χ^2 차이 검증

	χ^2 차이	df 차이	유의도
모형 1과 모형 2	47	31	$p = .034$
모형 2와 모형 3	71	31	$p = .000$
모형 2와 모형 4	31	26	$p = .212$
모형 4와 모형 5	6	5	$p = .303$

(다) 학력별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구인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성역할 검사의 평균점수 차이가 고졸 이하와 전문대 이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두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수준별로도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IV-12〉 집단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학력 집단	모형	χ^2	df	NNFI(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고졸 이하 집단 (N=917)	4요인 모형	3886	623	.732	.750	.076(.073-.078)
	5요인 모형	2834	619	.817	.830	.063(.060-.065)
	6요인 모형	1762	614	.905	.912	.045(.043-.048)

학력 집단	모형	χ^2	df	NNFI(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전문대졸 이상 집단 (N=881)	4요인 모형	4227	623	.735	.752	.081(.079-.083)
	5요인 모형	3179	619	.811	.824	.069(.066-.071)
	6요인 모형	2196	614	.882	.891	.054(.052-.057)
전체 집단 (N=1798)	4요인 모형	7266	623	.741	.757	.077(.075-.079)
	5요인 모형	5132	619	.823	.835	.064(.062-.065)
	6요인 모형	3016	614	.905	.912	.047(.045-.048)

〈표 IV-13〉 두 집단(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NNFI(TL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3957	1228	.893	.035(.034-.036)
모형2: 측정동일성	4021	1259	.894	.035(.034-.036)
모형3: 측정 및 완전절편 동일성	4093	1290	.895	.035(.034-.036)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 동일성	4061	1288	.896	.035(.033-.036)
모형5: 측정, 부분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4076	1294	.896	.035(.033-.036)

〈표 IV-14〉 두 집단(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χ^2 차이 검증

	χ^2 차이	df 차이	유의도
모형 1과 모형 2	64	31	$p = .000$
모형 2와 모형 3	72	31	$p = .000$
모형 2와 모형 4	40	29	$p = .091$
모형 4와 모형 5	15	6	$p = .021$

5) 잠재 평균 분석

20, 30대와 40, 50, 60대 간에 구인 동등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 잠재 평균 분석을 시도하였다. 잠재 평균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잠재 변수에 대한 집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조사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성역할 갈등도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

라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잠재 구인(latent construct)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t*-test나 M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류의 여지가 있다(Hong et al., 639). 잠재 평균은 측정 오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더 정확한 평균 차이를 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일련의 구인 동등성 검증이 되어야만 잠재 평균을 구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집단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잠재 평균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는 없고 한 집단의 구인 평균을 0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집단 간 차이만을 구할 수 있다. <표 IV-15>는 40세 이상 집단의 변수 평균을 0으로 고정하였을 때 40세 미만의 잠재 평균의 차이를 보여준다.

잠재 평균의 차이를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척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ohen의 *d* 효과 크기(Cohen, 1988)를 사용한다. 이는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를 집단 간 공통요인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공통요인 분산 값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두 집단 간 분산의 동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형 4와 모형 5의 NNFI, RMSEA 값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분산 동일성이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요인에 있어 40세 이상 집단에 비해 40세 미만 집단은 일·가정 양립 요인을 제외하고는 $p < .001$ 수준에서 잠재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성공·권력·경쟁 요인을 제외한 남성우월, 가장 의무감,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은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효과 크기는($d < .20$)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d < .20$: 작은 수준, $d < .50$: 중간 수준, $d < .80$: 큰 수준, 안상수 외, 2007, 84).

<표 IV-15> 두 집단(40세 미만, 40세 이상) 잠재 평균 차이

요인	19-39세 집단	40-88세 집단	효과 크기(d)
성공·권력·경쟁	.157***	.000	.036
남성우월	-.289***	.000	.123
가장의무감	-.438***	.000	.213
일·가정 양립 갈등	.100	.000	.043
감정표현 억제	-.426***	.000	.207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195***	.000	.084

*** $p < .001$.

앞에서 언급한 결혼 여부, 지역규모,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별 잠재 평균도 계산하였다. <표 IV-16>에서 보는 것처럼 미혼 집단에 비해 기혼 집단은 성공·권력·경쟁요인만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며 다른 모든 요인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혼 집단은 미혼 집단에 비해 가장의무감의 점수가 .730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효과 크기는($d < .50$) 크지 않았다.

<표 IV-16> 두 집단(기혼, 미혼) 잠재 평균 차이

요인	기혼 집단	미혼 집단	효과 크기(d)
성공·권력·경쟁	-.070	.000	.032
남성우월	.246***	.000	.104
가장의무감	.730***	.000	.348
일·가정 양립 갈등	.095	.000	.041
감정표현 억제	.373***	.000	.181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142	.000	.061

*** $p < .001$.

거주지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가장의무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효과 크기($d < .20$)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표 IV-17> 두 집단(중소도시, 대도시) 잠재 평균 차이

요인	중소도시 집단	대도시 집단	효과 크기(d)
성공·권력·경쟁	-.080***	.000	.037
남성우월	-.134	.000	.056
가장의무감	.030	.000	.015
일·가정 양립 갈등	-.052	.000	.022
감정표현 억제	-.028	.000	.013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002	.000	.001

*** $p < .001$.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 집단이 전문대졸 이상 집단보다 남성우월 요인과 감정표현 억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정표현 억제 요인의 평균차이가 .317로 가장 컸으나 효과크기($d < .20$)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표 IV-18〉 두 집단(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잠재 평균 차이

요인	고졸 이하 집단	전문대졸 이상 집단	효과 크기(d)
성공·권력·경쟁	-.042	.000	.019
남성우월	.287***	.000	.122
가장의무감	.100	.000	.049
일·가정 양립 갈등	-.093	.000	.040
감정표현 억제	.317***	.000	.154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137	.000	.059

*** $p < .001$.

이상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구인은 여러 집단을 통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성역할 갈등의 평균값 차이는 대체로 유의미하였으나 효과크기(d)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잠재 평균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모든 집단을 통해서 구인 동등성이 검증되었다.

2. 준거 타당도

가. 전체 검사 및 요인별 준거변수와의 상관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한 오닐은 검사가 개발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수행된 232개의 이 검사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남성 내적 심리와 관련된 준거변수 30개, 대인 관계에서의 준거 변수 37개, 치료적 맥락에서의 준거 변수 21개를 찾아내었다(O'Neil, 2008). 이처럼 오닐의

성역할 갈등 검사는 다양한 준거 변수를 가지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의 구인과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심리 변수가 많을수록 이 검사의 구인의 개념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4점 척도), 자존감(5점 척도), 삶의 만족도(5점 척도), 그리고 영역별 스트레스(재정, 건강, 부모역할, 결혼 및 애정, 일·직장·학업, 4점 척도)와 남성 성역할 갈등(6점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IV-16> 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는 모든 준거 변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 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관계수가 .296($p < .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상관관계수는 .276($p < .01$)이었다.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관계 -.166를 보여 갈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는 5개의 영역별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수가 .226($p < .01$)로 가장 높았다. 건강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각각 .113($p < .01$), .128($p < .0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역할 갈등 검사는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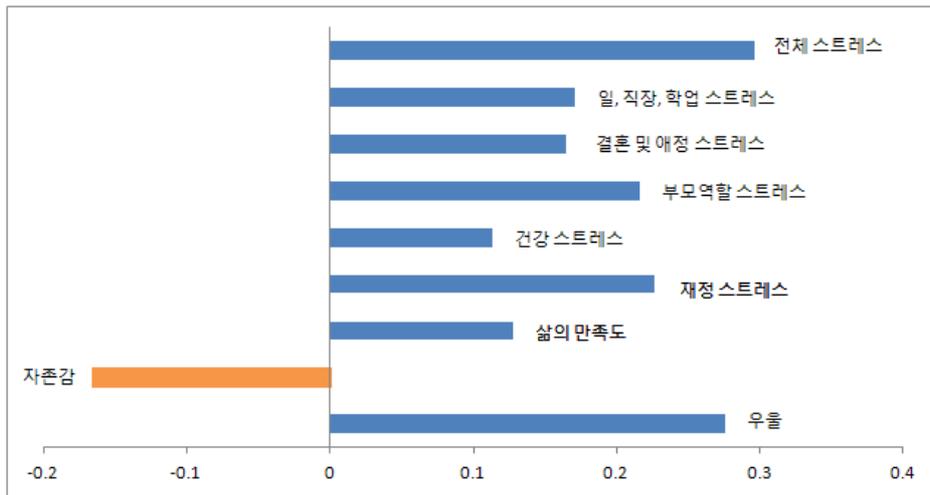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관계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관관계수가 높지는 않았지만 성역할 갈등이 일정 부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역할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할수록 이것이 자신의 삶을 (적어도 외면적으로) 조금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반면에 자존감은 성역할 갈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성역할 갈등이 자신의 내면적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IV-19〉 성역할 갈등 검사와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성공·권 력·경쟁	남성우월	가장 의무감	일·가정 양립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성역할 갈등 전체
우울	.150**	.178**	-.081**	.221**	.217**	.227**	.276**
자존감	-.018	-.111**	.165**	-.097**	-.208**	-.237**	-.166**
삶의 만족도	.123**	.084**	.082**	.053*	-.040	.180**	.128**
재정 스트레스	.146**	.093**	.005	.231**	.175**	.138**	.226**
건강 스트레스	.035	.022	-.023	.154**	.116**	.088**	.113**
부모역할 스트레스	.080**	.155**	-.246**	.132**	.178**	.283**	.216**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077**	.116**	-.123**	.136**	.165**	.119**	.165**
일·직장·학업 스트레스	.028	.123**	-.097**	.087**	.214**	.196**	.171**
전체 스트레스	.106**	.153**	.063**	.271**	.248**	.222**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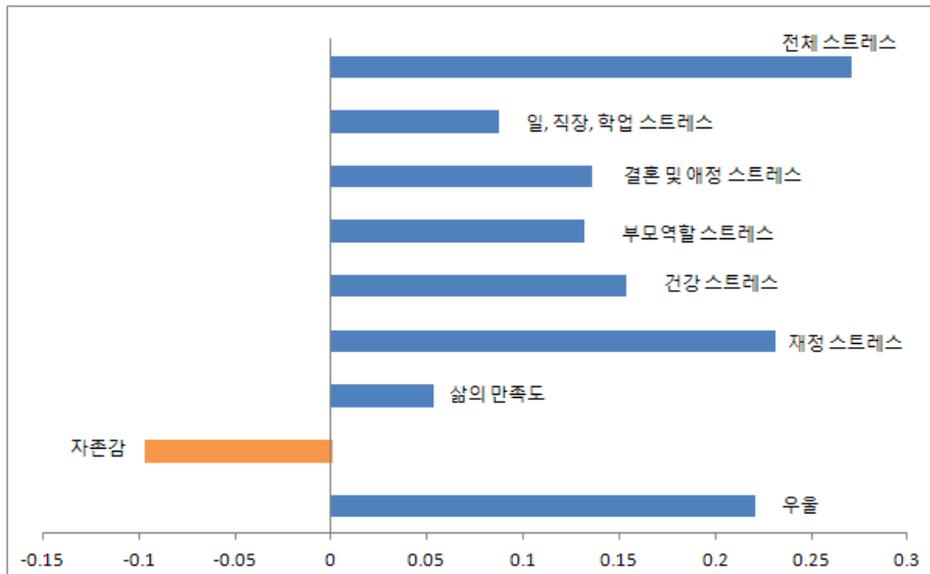
** $p < .01$. * $p < .05$.

아래 [그림 IV-1]에서 [그림 IV-7]까지는 위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왼편은 부적 상관관계, 오른쪽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만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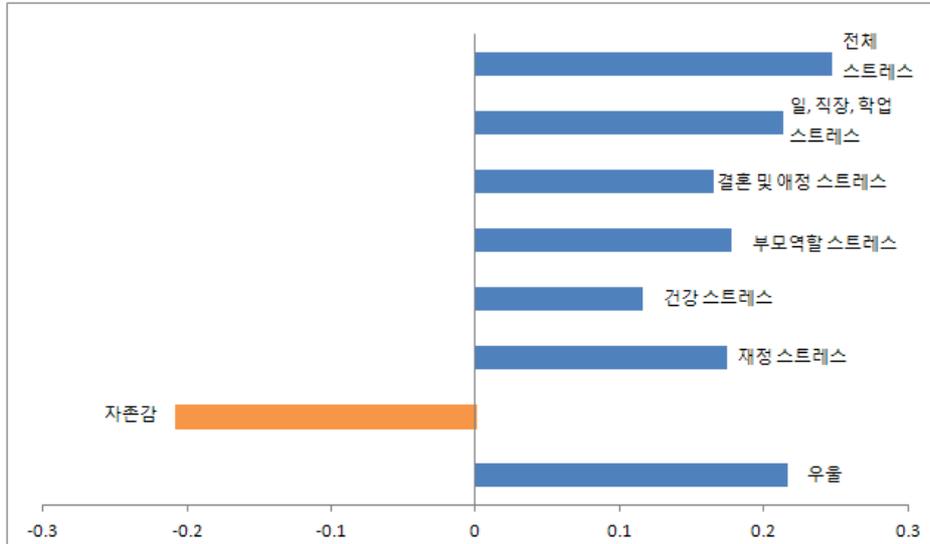
[그림 IV-1] 성역할 갈등 전체와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성역할 갈등 요인별로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준거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과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은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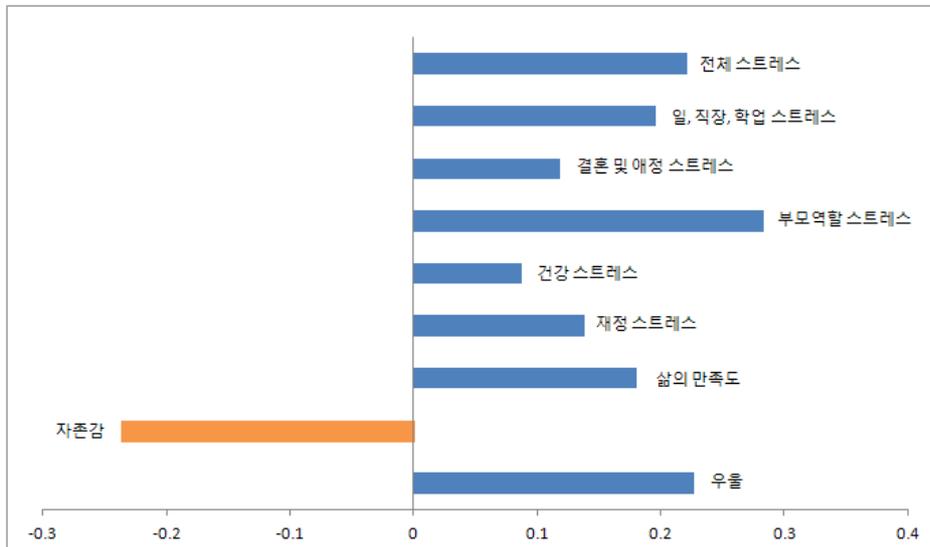
[그림 IV-2]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스트레스 전체와 $.271(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221(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이 우울감을 일으킬 수 있음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재정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재정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일에 더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또 건강 스트레스와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는 각각 $.154(p < .01)$, $.136(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건강과 결혼 및 애정 관계에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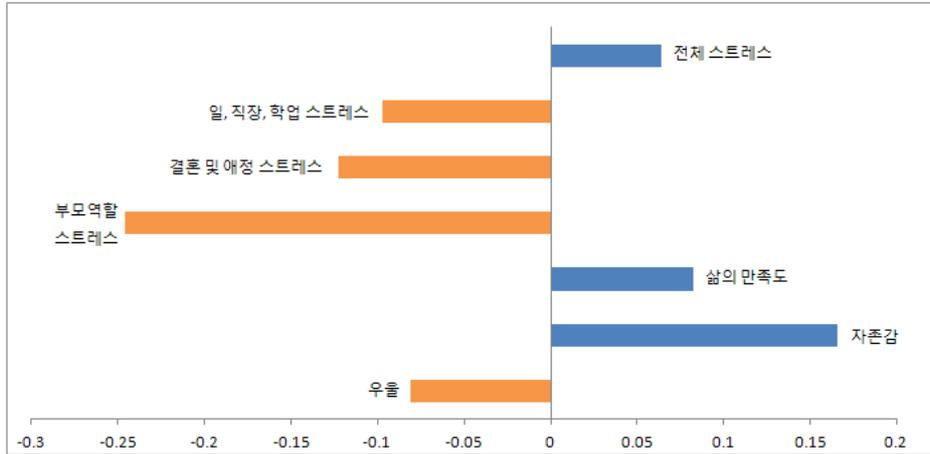
[그림 Ⅳ-3] 감정표현 억제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감정표현 억제는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우울과 $.217(p < .01)$, 자존감과 $-.208(p < .01)$, 스트레스 전체와 $.248(p < .01)$ 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스트레스 중에서는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 $.214$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재정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는 $.1$ 이상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여기서 감정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직장이나 학업을 수행하는데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존감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정표현 억제 규범에 덜 제약되거나 감정표현이 억제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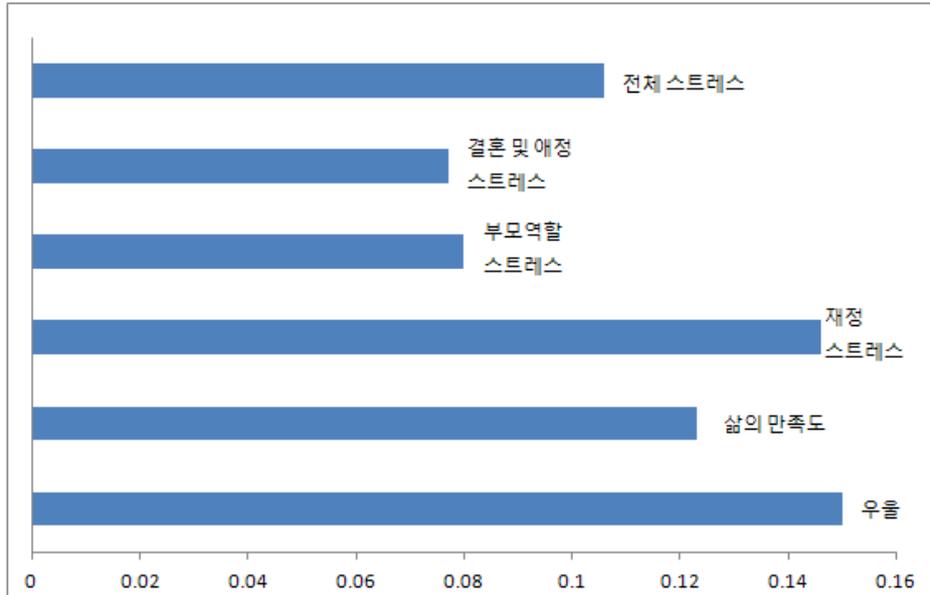
[그림 IV-4]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는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기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특히 삶의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가 흥미롭다. 즉, 모든 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180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이 갈등에는 한국 남성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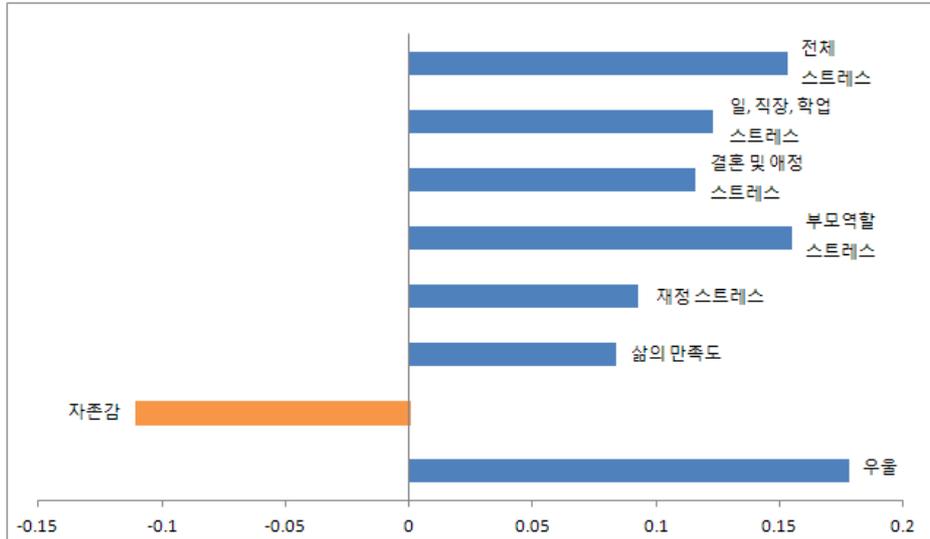
[그림 Ⅳ-5] 가장의무감 요인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

가장 의무감 갈등은 부모 역할 스트레스, 우울 및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는 부의 상관관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역할 갈등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자존감과 .165, 부모 역할 스트레스와는 $-.246(p < .01)$ 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가장의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도 높고 부모 역할 등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6] 성공·권력·경쟁 요인과 심리변수와의 상관관계

성공·권력·경쟁 요인도 우울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삶의 만족도와도 .123($p < .01$)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그 기능에 있어 양가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정 스트레스와 .146의 상관관계를 보여 역시 성공에 관한 갈등이 높은 사람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7] 남성우월 요인과 심리변수와의 상관관계

남성 우월 요인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정의 방향으로, 자존감과는 부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면에서는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와 일·가정 양립 갈등과 같은 예측효과를 갖는데 단지 상관계수가 낮았다. 스트레스 중에서는 부모 역할 스트레스와의 상관계수가 스트레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특별히 높지는 않았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남성 우월 요인은 남성 심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음을 알 수 있다.

나. 집단별 상관관계

앞에서 전체 성역할 갈등과 심리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면 준거 변수와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었다.³⁾ 먼저 연령대별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표 IV-20〉 연령대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20대 (N = 358)	30대 (N = 385)	40대 (N = 417)	50대 (N = 329)	60대 이상 (N = 311)
	r (n)	r (n)	r (n)	r (n)	r (n)
우울	.331** (358)	.258** (385)	.247** (417)	.252** (329)	.307** (311)
자존감	-.242** (358)	-.293** (385)	.000 (417)	-.184** (329)	-.069 (311)
삶의 만족도	.153** (358)	.039 (385)	.243** (417)	.079 (329)	.121* (311)
재정 스트레스	.178** (358)	.296** (385)	.195** (417)	.259** (329)	.197** (311)
건강 스트레스	.126* (358)	.164** (385)	.051 (417)	.103 (329)	.048 (311)
부모역할 스트레스	.688** (19)	.261** (230)	.187** (380)	.182** (324)	.197** (308)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110 (183)	.260** (325)	.187** (388)	.163** (323)	.132* (302)
일·직장·학업 스트레스	.098 (306)	.186** (371)	.163** (399)	.219** (299)	.119 (207)
전체 스트레스	.180** (358)	.348** (385)	.277** (417)	.331** (329)	.234** (311)

* $p < .05$. ** $p < .01$.

3) 집단별 심리 변수의 차이는 부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울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관계수가 높았다. 자존감은 20대, 30대, 40대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20대, 40대, 60대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40대에서 상관계수가 높았다. 재정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하였고 30대와 50대에서 상관계수가 높았다. 건강 스트레스와는 20대와 30대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하였고 20대와 30대가 높았다. 20대는 특히 .68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성역할 갈등이 높은 사람이 어린 나이에 부모역할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으로 추측된다. 단지, 20대에 부모인 사람은 19명에 불과해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고 30대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는 30대에서 50대까지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정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성역할 갈등과 상관관계를 보여 남성의 일생동안 성역할 갈등이 재정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건강 스트레스와는 30대까지만 상관관계가 있어, 젊었을 때만 건강 문제를 성역할과 관련해서 생각함을 짐작하게 한다. 즉,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것을 남성다움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줄어들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는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상관관계를 보여 이 역시 성역할 갈등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30대~50대까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20대는 아직 직장에서의 역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60대는 대부분 은퇴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21〉 기/미혼 집단의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기혼		미혼	
	<i>r</i>	<i>n</i>	<i>r</i>	<i>n</i>
우울	.238**	1315	.278**	485
자존감	.034	1315	-.091*	485
삶의 만족도	.096**	1315	.177**	485
재정 스트레스	.213**	1315	.233**	485
건강 스트레스	.130**	1315	.093*	485
부모역할 스트레스	.160**	1297	-.009	352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179**	1294	.124	227
일·직장·학업 스트레스	.185**	1164	.147**	418
전체 스트레스	.285**	1315	.235**	485

* $p < .05$. ** $p < .01$.

다음으로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미혼 집단은 우울, 재정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혼 집단도 이 요인들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미혼 집단에서 더 높았다. 미혼 집단은 삶의 만족도와 .177의 정의 상관관계, 자존감과는 .091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즉,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은 낮아진다. 미혼인 경우 결혼이라는 중요한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남성으로서의 결격 사유로 느낄 수 있고 나머지 성역할 규범을 준수함으로서 이를 보완한다고 느낀다면 성역할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기혼 집단에서는 미혼 집단에서는 없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역시 결혼 생활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스트레스와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도 미혼 집단보다 높았다. 자존감과 관련하여서는 자존감이 성역할 갈등에 영향

을 주는지, 성역할 갈등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후속 연구를 통해 조사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표 IV-22〉 거주 지역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대도시		중소도시	
	<i>r</i>	<i>n</i>	<i>r</i>	<i>n</i>
우울	.267**	834	.203**	966
자존감	.035	834	-.040	966
삶의 만족도	.211**	834	.050	966
재정 스트레스	.242**	834	.200**	966
건강 스트레스	.151**	834	.099**	966
부모역할 스트레스	.161**	786	.116**	863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144**	722	.164**	799
일·직장·학업 스트레스	.173**	719	.180**	863
전체 스트레스	.285**	834	.297**	966

***p* < .01.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울, 재정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대도시 거주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와 일·직장·학업 스트레스는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약간 더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성역할 갈등과 삶의 만족도가 .2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중소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의 삶의 방식과 익명성이 남성 성역할의 표출을 더욱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IV-23〉 학력별 집단의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	
	<i>r</i>	<i>n</i>	<i>r</i>	<i>n</i>
우울	.242**	917	.232**	881
자존감	.049	917	-.044	881
삶의 만족도	.163**	917	.093**	881
재정 스트레스	.225**	917	.218**	881
건강 스트레스	.141**	917	.098**	881
부모역할 스트레스	.113**	874	.168**	773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158**	809	.163**	710
일·직장·학업 스트레스	.193**	757	.148**	823
전체 스트레스	.323**	917	.260**	881

** $p < .01$.

마지막으로 학력별 집단에 따른 상관관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력별로는 구조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고졸 이하에서 우울, 재정, 부모역할, 건강,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또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도 높았다. 반면에 부모역할과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는 전문대졸 이상에서 높았다.

이처럼 집단별로 상관관계의 차이를 보았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 집단이다. 이는 연령별로 성역할의 내용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심리 변수와의 상관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 자존감 같은 정체성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미혼에서 성역할 갈등과의 상관성이 높고 스트레스는 대체적으로 기혼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전에는 성역할 갈등이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평가와 관계가 있고 결혼 후에는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 후에 역할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대도시 거주자에서 성역할 갈등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높지만 중소도시 거주자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다. 외국 연구 결과와 비교

외국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 요인 중 감정표현 억제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고 이 외에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성공·권력·경쟁이 역시 중요하게 나타난 반면(본 보고서 20쪽 참고), 우리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가 가장 많은 심리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과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는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에서는 성공·권력·경쟁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본 보고서 22쪽 참고). 또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연구 하나는 성역할 갈등과 자존감이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반해, 우리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성공·권력·경쟁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국에서는 연령대별로 성역할 갈등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연구가 있었는데 반해(본 보고서 23쪽 참고), 우리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가장의무감과 감정표현 억제는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도 효과크기는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IV-1-다-4) 잠재평균 분석 참조). 외국 연구에서도 감정표현 억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성역할 갈등과 심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외국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흥미로운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준거 변인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단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감정표현 억제와 일·가정 양립 갈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다(본 보고서 23쪽 참고).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감정표현 억제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약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외국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잠정적으로나마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로 계속해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추적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V

검사의 활용

- | | |
|---------------------------|-----|
| 1. 검사의 표준화 | 99 |
| 2. 이론적 시사점과 검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 108 |

1. 검사의 표준화

가. 검사 지침과 점수 계산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는 한국 남성들이 성역할 규범으로 인해 얼마나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남성들이 성역할 규범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성역할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성역할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성역할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뒤쳐진 느낌이 없지 않는데 영어권에서는 이전에는 성역할(sex role)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젠더 역할(gender role)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sex)이라는 단어가 선천적, 생물학적 남녀차이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데 비해 젠더는 남녀의 사회적 형성과 의미의 차이에 기반 하기 때문이다. 즉, 젠더는 남녀의 현재 지위나 역할의 차이가 남녀 자체의 선천적, 정신적, 물질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남녀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태도와 의미에 따른 것이라고 믿는 개념이고 따라서 남녀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믿는 철학적 시각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본 검사를 성역할 갈등 검사라고 명명한 이유는 젠더라는 단어의 난해성을 우려한 것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들이 성역할이라는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이름을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라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발자의 제안은 검사 대상자가 학력이 높고 젠더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 때는 검사의 목적을 아는 것이 검사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검사의 본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젠더 민감성이 떨어질 때는 본명보다는 “남성 의식 검사”라든가 “남성 심리 건강 검사” 라든가 하는 대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구인 개념은 다소 어렵더라도 검사 자체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검사 문항은 37문항으로 적절한 수이며 문항 내용도 이해하기 어

렵지는 않다. 문맥과 단어는 국어학자의 감수를 거쳤다. 또 검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축약형도 개발되어있다. 검사를 하는 상황에 따라 본 검사나 축약형 중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검사 자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검사가 예측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준거변수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검사를 시행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집단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이 집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본 검사 외에 준거 변수들을 포함시켜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또 검사자의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시킨다면 좀 더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검사의 고유한 목적은 검사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이 검사만을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본 검사는 37문항에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구인은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별로 특징이 있어 전체 점수와 함께 요인 점수를 참고하는 것도 개인의 성역할 갈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기준 및 해석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점수 범위는 37점에서 222점까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점수가 이 두 극단 점수 사이에 분포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 점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응답자의 성역할 갈등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몇 점이어야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이고 몇 점이어야 낮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역할 갈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때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의 검사 결과를 기준이라 하고 이처럼 기준을 참조하여 검사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검사를 기준 참조적 검사(norm-referenced test)라고 부른다(안상수 외, 2007, 148-149). 본 검사의 기준은 전국 1,8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검사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신뢰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도

구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검사의 표준화라고 부른다.⁴⁾

전국 1800명 남성에게 실시한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전체 평균과 요인별 평균점수가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는 자신의 전체 점수와 요인별 점수를 이 기술통계치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표 V-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기술통계치

	N	평균	표준편차
성공·권력·경쟁 요인	1800	30.45	6.44
남성우월 요인	1800	25.39	8.22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	1800	21.74	5.98
가장의무감 요인	1800	13.99	2.99
감정표현 억제 요인	1800	28.80	6.61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요인	1800	14.73	5.42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1800	132.11	22.46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 평균 점수와의 비교는 자신의 갈등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만을 보여줄 뿐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의 정도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에서 얻은 점수(원점수)를 T점수로 환원하고 백분위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 백분위(percentile)는 자기 점수와 같거나 그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즉 검사 점수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효과를 가진다. T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로서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상분포에 근사하게 원점수를 환원한 것이다. 이는 원점수를 가지고 백분위를 도출할 경우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과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다음 표는 T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한 규준이다.

4) 또한 검사의 실시, 점수의 계산 및 전환, 해석 등의 절차를 형식화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하기도 한다(김양희 외, 1999, 115).

〈표 V-2〉 표 점수 전환: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동일한 백분위나 T점수면 원점수 낮은 것을 삭제)

원점수	T점수	백분위
201	84	100
177	73	99
170	69	98
167	68	97
164	66	96
162	65	95
160	65	94
159	64	93
158	64	92
156	63	91
155	62	90
153	61	88
152	61	87
151	60	86
150	60	85
149	59	84
148	59	83
147	58	82
146	58	80
145	57	78
144	57	76
143	57	74
142	56	73
141	56	72
140	55	71
139	55	69
138	54	67
137	54	66
136	53	65
135	53	63
134	52	62
133	52	60
132	51	58
131	51	56
130	50	54
129	50	52
128	49	51
127	49	49
126	48	47

원점수	T점수	백분위
125	48	45
124	48	42
123	47	40
122	47	38
121	46	36
120	46	34
119	45	32
118	45	31
117	44	29
116	44	27
115	43	26
114	43	24
113	42	23
112	42	22
111	41	20
110	41	19
109	40	18
108	40	17
107	40	16
106	39	15
105	39	14
104	38	13
103	38	12
102	37	11
101	37	10
100	36	9
99	36	8
97	35	7
96	34	6
93	33	5
90	32	4
87	30	3
81	27	2
76 이하	25	1

〈표 V-3〉 요인별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원점수	성공·권력·경쟁		남성우월		가장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원점수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48	77	100	78	100									48
44	71	99	73	100									44
43			71	99									43
42	67	97	70	99					78	100			42
41	66	96	69	98									41
40	64	95	68	97									40
39	63	93	67	96									39
38	61	90	65	94									38
37	60	86	64	93									37
36	58	83	63	90			73	100					36
35	57	78	62	89					66	98			35
34	55	72	60	86			70	98	65	96			34
33	53	66	59	84					63	93			33
32	52	60	58	80			67	97	61	91			32
31	50	53	57	75			65	95	60	85			31
30	49	48	56	71			63	94	58	81	78	100	30
29	47	41	54	67			62	90	56	75			29
28	46	35	53	62			60	87	55	69			28
27	44	30	52	57			58	83	53	63			27
26	43	25	51	54			57	77	51	57			26
25	41	21	50	50			55	73	49	50	68	99	25
24	39	17	48	45			53	67	48	44	67	97	24
23	38	14	47	39			52	58	46	38	65	95	23
22	36	11	46	35			50	52	44	33	63	93	22
21	35	8	45	31			48	46	43	26	61	89	21
20	33	6	43	27			47	39	41	21	59	84	20
19	32	5	42	24			45	33	39	17	57	77	19
18	30	4	41	21	63	100	43	28	38	13	56	72	18
17	29	3	40	18	60	85	42	23	36	11	54	66	17
16	27	2	39	16	56	78	40	18	34	9	52	60	16
15			37	12	53	68	38	14	32	7	50	56	15
14	24	1	36	10	50	49	37	12	31	4	48	46	14
13			35	8	46	38	35	9	29	3	46	39	13
12			34	7	43	29	33	7			44	33	12
11			33	5	40	17	32	5	26	1	43	29	11

원점수	성공·권력·경쟁	남성우월		가장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원점수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10		31	4	36	11					41	25	10
9		30	3	33	7	28	3			39	18	9
8		29	2	29	4					37	14	8
7						25	1			35	11	7
6				23	2					33	8	6
5				19	1					32	6	5
4				17	0							4
3				13	0							3
2												2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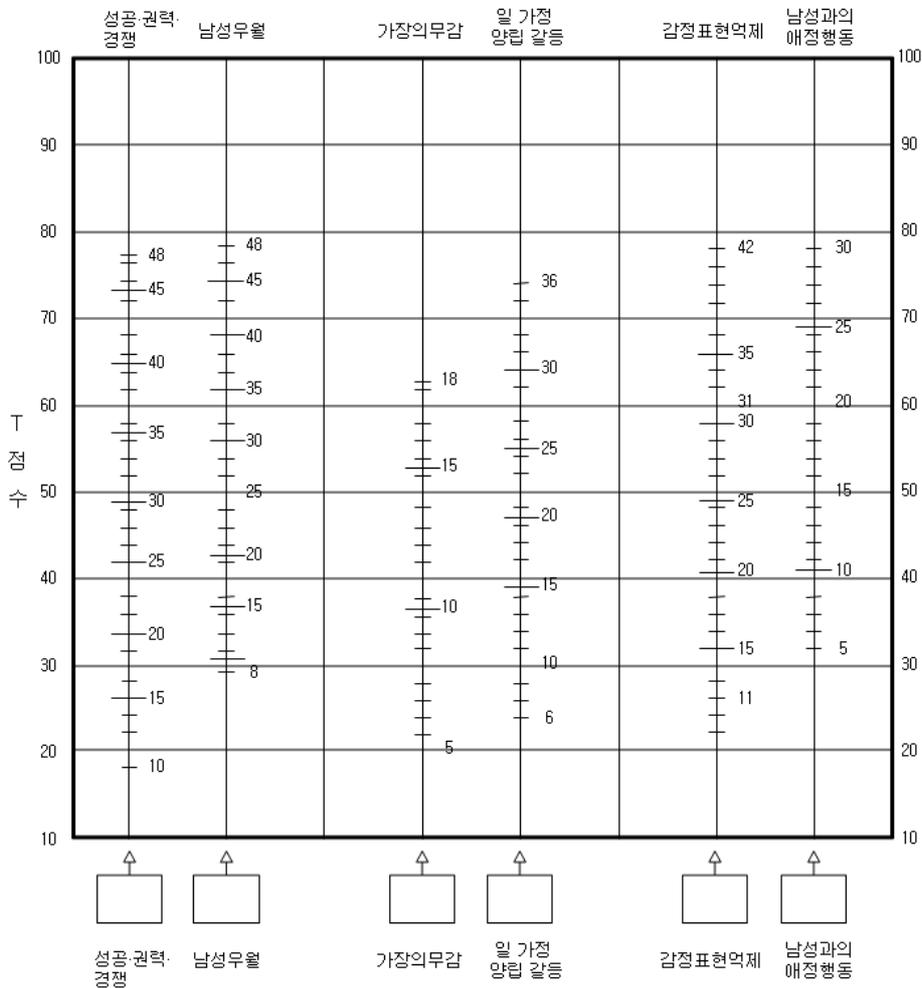
〈표 V-4〉 축약형 요인별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원점수	성공·권력·경쟁		남성우월		가장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원점수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12	72	100	73	100	62	100	71	100	73	100	76	100	12
11	68	98	69	98	57	79	67	96	68	98	72	99	11
10	63	95	65	96	52	67	62	94	63	96	68	98	10
9	58	85	60	88	48	42	58	85	58	86	63	94	9
8	54	71	56	78	43	29	54	70	54	71	59	87	8
7	49	52	52	64	38	14	50	53	49	48	55	73	7
6	44	35	48	49	33	8	45	38	44	33	50	58	6
5	40	20	44	33	28	4	41	23	39	20	46	40	5
4	35	13	39	22	23	3	37	16	34	12	42	30	4
3	31	4	35	11	18	1	32	6	30	4	38	16	3
2	26	2	31	6	14		28	3	25	1	33	11	2

〈표 V-5〉 축약형 문항 표 점수 전환: T점수 및 백분위 점수

원점수	T점수	백분위
68	83	100
60	72	99
58	69	98
56	67	97
55	65	95
54	64	93
53	63	91
52	61	89
51	60	85
50	59	82
49	57	78
48	56	74
47	55	69
46	53	64
45	52	60
44	51	54
43	49	49
42	48	44
41	47	38
40	45	32
39	44	28
38	43	24
37	41	20
36	40	16
35	39	14
34	37	12
32	35	7
31	34	5
30	32	4
29	31	3
27	28	2
24	24	1

마지막으로 개인의 요인별 점수를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프로파일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요인별로 원점수에 상응하는 T점수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성역할 갈등 점수의 요인별 높고 낮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다.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은 응답자의 요인별 원점수를 계산하여 프로파일 맨 아래 네모 칸에 기입한다. 다음 각 네모 칸과 화살표로 연결된 수직 선상에 그 점수와 상응하는 위치에 점으로 표시를 한다. 마지막으로 6개의 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 넣으면 된다.



[그림 V-1]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 프로파일: 6개 요인별

2. 이론적 시사점과 검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가. 이론적 시사점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개발 결과는 한국 남성의 성역할 규범과 갈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의 다면성이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은 6개이다. 이 중 4개는 ‘성공·권력·경쟁’,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로 오닐의 성역할 갈등 검사의 요인과 공통적이다. 이외에 오닐의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두 요인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장의무감’과 ‘남성우월’이다. 이 두 요인은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특수성을 잘 드러낸다. ‘가장의무감’은 오닐이나 아이슬러와 스키드모어의 검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인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지휘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을 말한다.

가장의무감이 남성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의 구조가 오닐의 것과 차이를 드러낸다. 오닐 검사의 4요인 중 3요인은 검사의 조작적 정의인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나머지 1요인인 성공·권력·경쟁은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한국형 성역할 갈등 검사에서도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 갈등은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3요인-성공·권력·경쟁, 가장의무감, 남성우월-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남성 성역할 제한의 요소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남성의 반응이 반반씩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 남성에게는 여성과의 차별화와 함께 남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남성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론 부분에서도 서술하였지만 한국에서의 남성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다. 특히 남성은 강하고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남성 이데올로기의 중심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성 성역할 갈등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측면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성역할 갈등을 가지는 것이 많은 부분 남성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설파하는 이상적 남성상에 가까워지는 결과라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장의무감 요인의 특수성이다. 전술한대로 가장의무감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남성 성역할 갈등의 요인이다. 그런데 이 요인은 남성 심리 변수와 대단히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이는 우울감과 부모역할 스트레스,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일·직장·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존감(.165)과 삶의 만족도(.082)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의무감 요인은 남성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역시 이데올로기 효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의 의무에 대해 대단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단히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역할 갈등을 총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요인별로 점검을 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셋째, 연령대별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안녕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 성인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연령적 궤적을 짐작할 수 있다. 우울과 관련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성역할 갈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은 성역할 갈등의 가장 심각한 심리적 역기능으로 보인다. 우울을 제외하고는 30대에서의 성역할 갈등이 가장 심각한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트레스와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도 2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30대에 들어서면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30대에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압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대에는 이러한 성역할의 새로운 국면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대에는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의 정도가 낮아지면

서 삶의 만족도와는 상관은 높아진다. 이처럼 40대에는 성역할에 익숙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50대에는 재정 스트레스 및 일·직장·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이 높아지는데 이는 50대에 재정, 직업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60대는 대부분 퇴직을 하기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와 상관은 없어진다. 흥미롭게도 60대에 부모역할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가 부양하는 쪽에서 부양받는 쪽으로 바뀔으로써 자신의 부모로서의 위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성역할 갈등과 건강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20대와 30대에만 존재하는데 이는 20, 30대만 건강을 성역할의 측면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몸만들기, 외모 지상주의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남성 성역할의 새로운 측면은 아직까지 젊은 세대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 조사의 결과는 한국 남성이 겪는 성역할 갈등의 속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남성들에게 성역할 갈등은 대단히 일상적인 경험일 것이다. 그만큼 성역할 갈등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강도 때문에 성역할 갈등의 강도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남성 비하적인 유머의 확산은 성역할 갈등의 비애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성역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 남성의 속성에 따라 성역할 갈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서도 성역할 갈등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앞의 분석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역할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생애주기에 따라 성역할이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의 패턴도 달라진다. 성역할 갈등 연구는 바로 이러한 패턴과 요인을 찾아 남성의 성역할 갈등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음 성역할 갈등 검사의 활용방안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검사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 검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 남성의 성역할 갈등 자기 평가

남성들이 자신의 성역할 갈등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 성역할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체성의 불안이나 왜곡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남녀의 역할이나 관계의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역할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좀 더 유연하고 평등한 남녀 관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남성들에게 성역할 갈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역할 갈등 검사는 난해하지는 않지만 검사 결과의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나 워크숍 등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지침을 제공한다면 혼자서도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와 기준, 프로파일 등을 탑재하여 자가 검사를 유도할 수 있다. 좋은 아버지 되기, 행복한 남성 되기 같이 남성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커뮤니티에 제공하면 더욱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처럼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교육, 리더십 교육, 성평등 교육, 성희롱 방지교육 등 여러 교육의 장에서 이 검사를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직장 남성의 직장 만족도, 남성 리더십, 성평등 의식 등이 성역할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행 후 채점, 기준 적용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성역할 갈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성역할과 성역할 갈등의 개념을 설명해준다면 남성들에게 인식과 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남성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에 활용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남성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우울감을 높이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불행히도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오늘날 한국 남성 심리의 보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역할 갈등이 자신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역기능 사이의 악순환을 끊기 힘들다. 따라서 남성 정신 건강 증진 교육에 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 치료나 자살방지 등이 중요한 사업 내용인데 이러한 센터에서는 젠더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남성에 있어서 성역할 갈등과 정신적 문제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천적 신체조건 같은 변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성역할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중의 하나인데 사회의 성역할 규범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 객관적 인식을 함으로써 그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는 있다. 남성들이 성역할 갈등을 이해하고 이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센터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곳에 이 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활용

남성 성역할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남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남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되어야하는지 지시하고,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어떤 태도와 대우를 기대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준다. 예를 들어 남성우월 요인은 주로 아내와의 관계를 지시하고 가장의무감은 자녀와 아내, 그리고 그 외의 집안사람들, 성공·권력·경쟁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감정표현 억제, 일·가정 양립은 간접적으로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규범은 오늘날 남성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감정표현 억제는 남성의 감성적 측면을 억압함으로써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을 저해시킨다. 예로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가 말이 많으면 가벼워보인다’ 등 남성의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규범이 존재해 왔고 남성 개개인들도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 감성과 표현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성들도 변하고자 하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규범의 힘과 관성의 힘은 막강해서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 갈등 검사의 시행을 통해 남성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건강가족센터이다. 건강가족센터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직장남성대상의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남성의 감정표현의 중요성, 감정표현이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감성과 표현이 중시되는 쪽으로 시대적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되며, 자신의 감정표현점수를 본 도구를 활용하여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방식이 될 것이다. 또 여성 단체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성폭력범 교화 프로그램에 활용

성역할 갈등은 성희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용인,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및 성관계 강요, 강간 신화 믿음, 성폭력, 여성에 대한 적대감, 데이트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II장 대인관계에서의 성역할 갈등 참조). 이처럼 성역할 갈등이 성폭력적 성향과 관련된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고 따라서 성폭력 사범을 교화, 치료하는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실이다.

성역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남성의 심리 임상 치료 전반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성폭력범과 관련해서는 그들 자신의 심리 건강 및 재활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성역할 갈등과 관련된 부작용을 없앨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을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성역할 갈등을 평가하여 성역할 갈등 패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이론 부분에서 서술한 것처럼 성역할 갈등 요인 중 감정 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가 강간의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역할 갈등 검사 시행 후 감정 억제와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관련 갈등이 높은 대상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감정을 좀 더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미술, 연극, 음악 치료 등의 임상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성평등 정책 및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에 활용

남성의 성역할 갈등 현황은 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성역할 갈등은 성평등 의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본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성평등 의식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 기존의 성차별 의식검사나 성평등 의식 검사가 주로 여성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다. 즉,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남성지향적 성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측정하기 어렵다. 현재의 갈등 구조는 여성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 못지않게 남성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남성이 얼마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와 얼마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남성의 역할에 대한 남성의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한국 사회 성평등의 새로운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성의 성역할 개념을 통한 성평등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가족 정책에 있어서도 남성의 성역할 개념은 중요하다. 가족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검사는 결혼 이주자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결혼하는 부부의 상당 부분이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런데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 한국 남편들의 성역할 의식 때문이다. 특히 남성 집안 위주의 남성 성역할 개념은 동남아 등에서 오는 여성들의 성역할 개념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우월의 개념도 그들의 것과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지는 남성 성역할 개념과 그들 남편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인숙(2004).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과 남성성 - 공론화되지 않은 원인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21(1). 3~35.
- 김남숙·정진경·박광배(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77~90.
-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희(1998). 한국형 성역할검사 개발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8(4). 189~213.
- 김지현(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4). 1~22.
- 김지현·황매향·유정이(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 김지현·황옥경·최희철(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 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 박노자(2010). 씩씩한 남자 만들기. 푸른역사.
- 박수애·조은경(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77~103.
- 송연숙·유수경(2008). 유아교사용 역할갈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28(4), 189~213.
- 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김진실(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진·최정훈·김영미(1987).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남성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70~83.
- 우종민(2009). 남자심리학. 리더스북.
- 이병숙·김명애·고효정(2002).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2(3). 373~383.
- 이나련·이숙현(2001). 연령대에 따른 기혼 남성의 생계 부양자 역할 의식. 『한국가족학회지』, 6(1). 21~41.
- 이수연·백영주·박군석(2009).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숙인(2002). 『군자와 폭군』. 전통과 현대 21호(8~23). 전통과 현대사.
- 전경구,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 A PRELIMINARY STUDY)”,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1992: 437~445.
- 정진경(1987). 성역할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조중현(2008). 남성성 규범과 젠더화된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성구매. 젠더리뷰, 9. 72~79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희철·김지현·김병석(2009).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한국인권재단(2009). 한국 40대 직장남성들의 생활과 인권 - 사회의 병리, 육체의 손상, 영혼의 노숙. 『한국인권재단 생활인권시리즈 2009』
- 한영석·윤창영·김금미·김명소(2000) 일곱 가지 여성, 남성 콤플렉스에 관한 심리학적 조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73~88.
- 홍기원(2001). 대학생들의 성차의식이 성과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37~152.
- 홍기원·전방지·차경호(2001).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73~188.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황매향·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lexander J Mussap. (2008).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the pursuit of muscul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7(1), 72~88.
- Asberg, K. K., Bowers, C., Rent, K., & McKinney, C. (2008).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he study of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9(4), 481~501.
- Barry, D. T., Bernard, M. J., & Beitel, M. (2006). Gender, sex role ideology, and self-esteem among east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9), 708~711.
- Belk, S. S., & Snell, W. E., Jr. (1988). Avoidance strategy use in intimate

-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80~96.
- Bernard E. Whitley, Jr. (1987). The relationship of sex-role orientation to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Sex Roles*, 17, 103~113.
- Burda, P. C., Vaux, A., & Schill, T. (1984). Social support resources: Variation across sex and sex ro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119~126.
- Burda, P. C., & Vaux, A. C. (1987). The social support process in men: Overcoming sex-role obstacles. *Human Relations*, 40(1), 31~44.
- Burns, J., & Oliver, G. The five myths of masculinity. http://www.cbn.com/familyfamilyadvice/Burns_masculinity.aspx 2011년 10월 7일 인출.
- Clatterbaugh, K. (1990).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asculin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u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6~396.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wns, A. C., & Engleson, S. A. (1982). The attitudes toward men scale(AMS): An analysis of the role and status of men and masculinit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2(4), 45.
- Ehrenreich, B. (2006). The decline of patriarchy. In Whitehead, S. M.(Ed.), *Men and Masculinities(I)* (pp. 223~228). Routledge.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Emslie, C., Ridge, D., Ziebland, S., & Hunt, K. (2006). Men's accounts of depress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2(9), 2246~2257.
- Gackenbach, J. I., & Auerbach, S. M. (1985) Sex-role attitudes and perceptual learn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2), 233~243.
- Gilmore, D. D. (1990). *Manhood in the Making: Culture Concepts of Masculin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hafetz, J. S. (1979). *Masculine, Feminine to Human*: FE Peacock Publishers.
- Harris, L. M., Cumming, S. R., & Campbell, A. J. (2006).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llied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Allied Health*, 35(4),

198~207.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Imms, W. D. (2000). Multiple masculinities and the schooling of boy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5*(2), 152~165.
- Jurkovic, D., & Walker, G. A. (2006). Examining masculine gender-role conflict and stress in relation to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Australian men. *Journal of Men's Studies, 14*(1), 27.
- Kimmel, M. S. (1987). *Changing Men: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Newbury Park, CA: Sage.
- Lantz, P. M., House, J. S., Mero, R. P., & Williams, D. R. (2005). Stress, life events,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Results from the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3), 274-289.
- Levant, R. F., & Pollack, W. S. (1995). *A New Psychology of Men*. Basic Books.
- Malin, B. J. (2005). *American Masculinity Under Clinton*. Peter Lang Publishing Inc.
- Mosher, D. L., & Sirkin, M. (1984). Measuring a macho personality constell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8*, 150~163.
- Mussap, A. J. (2008).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the pursuit of muscul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7*(1), 72~88.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 14*, 335~350.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 Snell, W. E., Jr. (1986). The masculine role inventory: Components and correlates. *Sex Roles, 15*, 443~455.
- Snell, W. E., Jr., Belk, S. S., & Hawkins, R. C. II. (1986). The masculine role as a moderator of stress-distress relationships. *Sex Roles, 15*, 359~366.
- Snell, W. E., Jr., Belk, S. S., & Hawkins, R. C. II. (1986). The stereotypes about male sexuality scale(SAMSS): Components, correlates,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counselor bias. *Social and Behavior Science Documents, 16*(1), 9

- Snell, W. E., Jr., Belk, S. S., & Hawkins, R. C. II. (1987). Alcohol and drug use in stressful times: The influence of the masculine role and sex-related personality attributes. *Sex Roles, 16*, 359~373.
- Snell, W. E., Jr., Belk, S. S., & Hawkins, R. C. II. (1988). Stereotypes about male sexuality and the use of social influence strategie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42~48.
- Swain, J. (2006). Reflections on patterns of masculinity in school settings. *Men and Masculinities, 8*(3), 331~349.
- Whitley, B. E., Jr. (1987). The relationship of sex-role orientation to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Sex Roles, 17*, 103~113.
- William E. Snell, Jr. (1986). The masculine role inventory: Components and correlates. *Sex Roles, 15*, 443~455.
- William E. Snell, Jr., Sharyn S. Belk, and Raymond C. Hawkins II. (1986). The masculine role as a moderator of stress-distress relationships. *Sex Roles, 15*, 359~366.
- William E. Snell, Jr., Sharyn S. Belk, and Raymond C. Hawkins II. (1987). Alcohol and Drug Use in stressful times: The influence of the Masculine Role and Sex-Related Personality Attributes. *Sex Roles, 16*. 359~373.
- Burns, J. & G. Oliver, The Five Myths of Masculinity.
http://www.cbn.com/family/familyadvice/Burns_masculinity.aspx, 2011. 10. 7
 검색



부 록

〈부록 1〉 설문지	125
〈부록 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문항	143

〈부록 1〉 설문지

한국인의 성역할 의식에 대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000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우리나라 남성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남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여 남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 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활용됩니다. _____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앞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_____님이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 문의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박사 Tel. 02-3156-7153
(주)한국리서치 유은정 차장 Tel. 02-3014-0084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거주지 규모	① 대도시(광역시 이상) ② 중소도시(동부) ③ 중소도시(읍면부)		
직업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동안
면접원명		검증결과	

A. 성향

※ 다음은 _____님의 성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_____님의 평소 성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믿음직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섬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과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어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남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온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털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상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박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감정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독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깔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씩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야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인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근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22	다정다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의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알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의지력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유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대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집념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순종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의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꼼꼼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지도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얌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결단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여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모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쌉쌉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성공

※ 다음은 성공에 대한 _____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_____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님이 경험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황을 가정하여 답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그다지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한다	대체로 일치 한다	매우 일치 한다
1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C. 남성다움

※ 다음은 남성다움에 대한 _____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_____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님이 경험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황을 가정하여 답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그다지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한다	대체로 일치 한다	매우 일치 한다
1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사 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직장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D. 일과 가정

※ 다음은 일과 가정에 대한 _____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_____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 경험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님이 경험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황을 가정하여 답해주시시오.

번호	문 항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그다지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한다	대체로 일치 한다	매우 일치 한다
1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가사와 직장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E. 감정표현

※ 다음은 감정표현에 대한 _____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_____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 경험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님이 경험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황을 가정하여 답해주시시오.

번호	문 항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그다지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 한다	대체로 일치 한다	매우 일치 한다
1	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남들의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F. 가정, 학교, 사회문화, 직장에 대한 의견

※ 다음은 _____님의 가정, 학교, 사회문화, 직장 영역에서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_____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 경험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여자는 남자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①	②	③	④
6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①	②	③	④
8	여자는 남자에 비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9	접수나 안내 업무는 무뚝뚝한 남자보다 친절할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10	남녀 혼성 학과의 과대표는 남학생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14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 책임보다 더 크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6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17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18	남녀관계에서 여자는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19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0	집안 일 중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21	리더십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2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①	②	③	④
23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24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25	교장과 같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26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27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8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①	②	③	④
29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0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1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32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3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5	텔레비전에서는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6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7	이혼 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8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①	②	③	④
39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남자는 사귀는 여자보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0	남자는 업무 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G. 남녀 관계

※ 다음 각 문항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 그리고 남녀 간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_____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 경험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2	남자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은 만큼 여자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여자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5	여자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6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7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추운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선천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여성은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남자는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H. 자신과 삶에 대한 느낌

※ 다음은 _____님 자신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_____님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대체적으로 내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삶의 상황은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만약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 지난 1주 동안의 느낌이나 생각

※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____님이 얼마나 자주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셨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① 극히 드물게 : 1일 이하 / ② 가끔 : 1일 ~ 2일 / ③ 자주 : 3일 ~ 4일 / ④ 거의 대부분 : 5일 ~ 7일

번호	문 항	지난 1주 동안			
		극히 드물게	가끔	자주	거의 대부분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먹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3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6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12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①	②	③	④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6	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18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J. 스트레스

※ 다음은 재정, 건강, 부모, 결혼 및 애정, 직장에 있어서 _____님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느낌이나 생각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다음 재정 및 건강에 대한 문항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재정 상태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돈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돈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건강 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현재 신체적인 건강상태는 내 나이 또래들에 비해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부모 역할에 대한 문항은 현재 자녀가 있으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시점에서 내가 부모가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방해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자녀들이 자란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결혼 및 애정에 대한 문항은 현재 기혼이시거나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 중인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배우자/파트너와 이혼하거나 헤어질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파트너와 유쾌하지 않은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파트너와의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방해받는다고 느끼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일, 직장, 학업에 대한 문항은 현재 일이나 직장을 갖고 계시거나 학업 중인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업무는 삶의 의욕을 돋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일에는 성장의 여지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자리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K. 일반적 사항

1. _____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중퇴 포함)
 - ②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포함)
 - ③ 전문대 졸업
 - ④ 전문대 재학 중
 - ⑤ 대학교 재학 중
 -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재학 중
 - ⑧ 대학원 졸업 이상

2. _____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기혼 ⇨ 3으로
 - ② 미혼 ⇨ 5로
 - ③ 이혼/별거/사별 ⇨ 4로

3. _____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 _____님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5. 현재 _____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보너스와 수당을 포함, 세금 공제 전의 액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소득 없음
 - ② 1~99만원
 - ③ 100~199만원
 - ④ 200~299만원
 - ⑤ 300~399만원
 - ⑥ 400~499만원
 - ⑦ 500만원 이상

6. (문2의 ① 기혼인 응답자만) 현재 _____님의 배우자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보너스와 수당을 포함, 세금 공제 전의 액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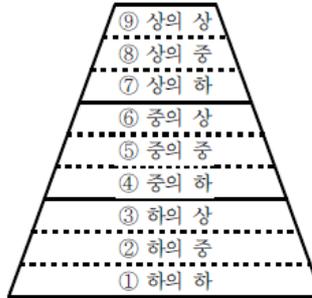
- ① 소득 없음
- ② 1~99만원
- ③ 100~199만원
- ④ 200~299만원
- ⑤ 300~399만원
- ⑥ 400~499만원
- ⑦ 500만원 이상

7.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_____님댁의 월평균 가구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은 얼마나 됩니까?(이자수입, 임대수입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의 액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귀댁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더하여 적어 주십시오.)

- ① 소득 없음
- ② 1~99만원
- ③ 100~199만원
- ④ 200~299만원
- ⑤ 300~399만원
- ⑥ 400~499만원
- ⑦ 500~599만원
- ⑧ 600~699만원
- ⑨ 700~799만원
- ⑩ 800~899만원
- ⑪ 900~999만원
- ⑫ 1000만원 이상

8. 현재 _____님의 생활 정도는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의 하
- ② 하의 중
- ③ 하의 상
- ④ 중의 하
- ⑤ 중의 중
- ⑥ 중의 상
- ⑦ 상의 하
- ⑧ 상의 중
- ⑨ 상의 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문항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최종 문항

요인명	문 항
성공 · 권력 · 경쟁	<p>돈을 잘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p> <p>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p> <p>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p> <p>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p> <p>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p> <p>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p> <p>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p> <p>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p>
남성우월	<p>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p> <p>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p> <p>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p> <p>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p> <p>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p> <p>가사 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p> <p>직장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p> <p>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p>
가장의무감	<p>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p> <p>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p> <p>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p>

요인명	문항
<p>일·가정 양립 갈등</p>	<p>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p> <p>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p> <p>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p> <p>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p> <p>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p> <p>가사와 직장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p>
<p>감정표현 억제</p>	<p>나는 애정표현을 하기 힘들다</p> <p>나는 남들의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p> <p>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p> <p>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p> <p>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p> <p>상대방에게 그(녀)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p> <p>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p>
<p>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p>	<p>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p> <p>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p> <p>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p> <p>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p> <p>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p>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

요인명	문 항
성공·권력·경쟁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남성우월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장의무감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갈등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 한다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감정표현 억제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 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부표 1〉 거주지 규모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검사의 평균 차

종속변수	거주지 규모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우울	대도시: a	16.59	8.76	9.11/0.000*	a>b
	중소도시(동부): b	14.76	7.37		
	중소도시(읍면부): c	15.52	8.19		
자존감	대도시: a	18.47	2.80	3.40/0.034*	b>c
	중소도시(동부): b	18.59	2.82		
	중소도시(읍면부): c	18.09	2.97		
삶의 만족도	대도시: a	14.79	3.65	0.114/0.892	-
	중소도시(동부): b	14.73	3.64		
	중소도시(읍면부): c	14.68	3.59		
재정 스트레스	대도시: a	8.04	2.94	3.48/0.031*	a>b
	중소도시(동부): b	7.81	2.93		
	중소도시(읍면부): c	7.55	2.95		
건강 스트레스	대도시: a	8.06	1.94	1.29/0.275	-
	중소도시(동부): b	7.93	1.98		
	중소도시(읍면부): c	8.12	2.06		
부모역할 스트레스	대도시: a	5.00	2.22	21.32/0.000*	a>b
	중소도시(동부): b	4.50	2.40		
	중소도시(읍면부): c	3.99	2.37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대도시: a	6.81	2.52	10.41/0.000*	a>b
	중소도시(동부): b	6.15	2.51		
	중소도시(읍면부): c	6.42	2.73		
일·직장·학업스트레스	대도시: a	7.71	2.66	2.278/0.062	-
	중소도시(동부): b	7.36	2.73		
	중소도시(읍면부): c	7.53	2.58		

* $p < .05$.

〈부표 2〉 학력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검사의 평균 차

종속변수	학력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우울	중학교 졸업 이하: a	15.61	8.23	0.70/0.498	-
	고등학교 졸업: b	16.02	8.32		
	전문 대재 이상: c	15.54	8.12		
자존감	중학교 졸업 이하: a	17.89	2.63	9.21/0.000*	a, b<c
	고등학교 졸업: b	18.29	2.91		
	전문 대재 이상: c	18.70	2.81		
삶의 만족도	중학교 졸업 이하: a	15.21	3.23	5.34/0.005*	a, c>b
	고등학교 졸업: b	14.42	3.77		
	전문 대재 이상: c	14.89	3.61		
재정 스트레스	중학교 졸업 이하: a	7.50	2.89	4.40/0.012*	a<b
	고등학교 졸업: b	8.11	3.00		
	전문 대재 이상: c	7.79	2.90		
건강 스트레스	중학교 졸업 이하: a	8.20	1.91	2.26/0.105	-
	고등학교 졸업: b	8.09	1.97		
	전문 대재 이상: c	7.93	2.00		
부모역할 스트레스	중학교 졸업 이하: a	4.72	2.50	6.54/0.001*	b>c
	고등학교 졸업: b	4.88	2.36		
	전문 대재 이상: c	4.43	2.26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중학교 졸업 이하: a	6.40	2.44	0.26/0.774	-
	고등학교 졸업: b	6.55	2.56		
	전문 대재 이상: c	6.51	2.62		
일·직장·학업스트레스	중학교 졸업 이하: a	8.20	2.37	12.82/0.000*	a, b>c
	고등학교 졸업: b	7.78	2.64		
	전문 대재 이상: c	7.24	2.73		

* $p < .05$.

〈부표 3〉 연령대별 성역할 갈등 검사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검사의 평균 차

종속변수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우울	20대: a	15.88	8.36	3.68/0.005*	c>d
	30대: b	15.71	8.68		
	40대: c	16.81	8.30		
	50대: d	14.55	7.51		
	60대 이상: e	15.46	7.97		
자존감	20대: a	18.77	2.74	3.43/0.008*	a>e
	30대: b	18.60	2.84		
	40대: c	18.35	2.94		
	50대: d	18.42	2.74		
	60대 이상: e	18.01	2.86		
삶의 만족도	20대: a	14.85	3.50	0.92/0.450	-
	30대: b	14.78	3.74		
	40대: c	14.57	3.71		
	50대: d	14.58	3.54		
	60대 이상: e	15.02	3.63		
재정 스트레스	20대: a	7.50	2.88	5.81/0.000*	a, e<c
	30대: b	8.03	2.93		
	40대: c	8.32	2.91		
	50대: d	7.93	3.07		
	60대 이상: e	7.45	2.82		
건강 스트레스	20대: a	7.85	2.03	3.06/0.016*	a<d
	30대: b	7.92	2.00		
	40대: c	7.97	1.85		
	50대: d	8.32	2.10		
	60대 이상: e	8.12	1.89		

종속변수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부모역할 스트레스	20대: a	4.02	1.69	8.84/0.000*	a<c, d, e
	30대: b	4.50	2.30		
	40대: c	4.66	2.32		
	50대: d	5.01	2.57		
	60대 이상: e	4.95	2.52		
결혼 및 애정 스트레스	20대: a	6.94	2.83	3.84/0.004*	a>e
	30대: b	6.51	2.58		
	40대: c	6.68	2.69		
	50대: d	6.48	2.44		
	60대 이상: e	6.08	2.32		
일·직장· 학업 스트레스	20대: a	7.14	2.65	5.36/0.000*	a<d, e b<e
	30대: b	7.33	2.71		
	40대: c	7.58	2.68		
	50대: d	7.84	2.64		
	60대 이상: e	8.07	2.57		
* $p < .05$.					

Abstract

Development of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Soo-Yeon Lee
In-Soon Kim
Ji-Hyun Kim

Male gender role is known to cause psychological dysfunctions such as depression, stresses, and low self-este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ssess the degree of Korean men's gender role conflict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psychological dysfunctions.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the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and using this scal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stresses and self-esteem. The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is constituted with 37 items and has six factors such as male superiority(28.2%), work and family relation(9.0%), success, power, competition(7.7%), restrictive emotionality(6.4%), family head responsibility (4.8%), restrictive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3.9%). All six factors explain 60.2% of the total variance. As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es show,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all the psychological variables mentioned above. Stress is most strongly correlated at the level of $.296(p < .01)$ and depression is correlated at $.276(p < .01)$. Self-esteem is negatively correlated at the level of $-.166$. Among stresses, financial stress is most strongly correlated at the level of $.226(p < .01)$ and health stress is least strongly correlated at $.128(p < .01)$. We propose to utilize the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the purpose of self-assessment of men's gender role conflict and in the occasions of counseling for men's mental health improvement, workshop and counseling for couple and family relation improvement.

2011 연구보고서- 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금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409-4 93330

<정가 10,500 원>